제주발전연구원 개원 18주년 기념 세미나

중국 정책 변화와 제주의 대응 방안

■ 개요

· 일 시 : 2015. 5. 6(수) 14:00 ~ 17:00

· 장 소 : 제주상공회의소 5층 국제회의장

· 주 최 · 주 관 : 제주발전연구원

■ 프로그램

시 간	내 용	
14:00~14:20	등록	
14:20~14:25	개회식	국민의례 등
14:25~14:30	개회사	강기춘(제주발전연구원장)
14:30~15:40	주제 발표	**주제발표 1 : 중국 일대일로/AIIB 전략의 정치 · 경제적 함의와 제주경제** /서창배(부경대학교 국제지역학부 교수)
		주제발표 2 : 제주특별자치도의 중국자본 유치 확대방안 /정지형(제주발전연구원 중국연구센터장)
15:40~16:00	휴 식	Coffee Break
16:00~16:50	지정 토론	**좌장** 김동욱(제주대학교 회계학과 교수) **토론자** 김철빈(한중지역경제협회장) 김형근(신라대학교 국제학부 교수) 양기철(제주특별자치도 국제통상국장) 오광진(한국경제신문 디지털전략부장) 정지현(대외경제정책연구원 중국권역별 · 성별연구단 팀장)
16:50~17:00	자유 토론	Floor 토론
17:00	폐 회	사회자

제주발전연구원 개원 18주년 기념 세미나

중국 정책 변화와 제주의 대응 방안

Contents

주제발표 1

· 중국 일대일로/AIIB 전략의 정치 · 경제적 함의와 제주경제
서 창 배(부경대학교 국제지역학부 교수) ····· 7

주제발표 2

· 제주특별자치도의 중국자본 유치 확대방안
정 지 형(제주발전연구원 중국연구센터장) ····· 47

개 회 사



여러분 반갑습니다. 제주발전연구원장 강기춘입니다.

계절의 여왕인 5월에 제주발전연구원이 개원 18주년을 기념하여 “중국 정책 변화와 제주의 대응 방안”이라는 주제로 세미나를 개최하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이번 세미나는 제주와 중국간 중장기적인 상생발전을 위하여 최근 변화하고 있는 중국 정책을 살펴보고 제주의 대응 방안을 모색하는데 그 의의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1992년 수교 이래 한·중 관계는 놀라운 발전을 이루었고, 매 5년마다 한 단계씩 격상되어 2008년에는 “전략적 협력 동반자 관계”로까지 발전되었습니다.

최근 제주에는 중국인 관광객과 중국자본 유입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중국 변수는 향후에도 제주발전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됩니다.

중국은 저우추취(走出去)정책을 추진하면서 자국기업의 해외투자를 적극 장려하고 있습니다. 이에 제주는 현재 관광산업 위주로 편중되어 있는 중국자본 투자를 다변화하고, 제주의 가치를 키우는 투자확대 방안을 마련해야 합니다.

최근 중국은 One Belt One Road, 즉 일대일로 국가전략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일대일로는 육·해상 신 실크로드 경제권을 형성하고자 하는 35년 장기 프로젝트입니다.

일대일로 전략은 현재 중국 내부적으로는 발전계획이 조금씩 발표되고 있지만 국가간의 프로젝트는 구체화되지 못하고 있으나, 향후 일대일로가 실제로 가시화된 이후 나타날 수 있는 효과에 대해 우리는 주목할 필요가 있다고 여겨집니다.

이런 의미에서 오늘 개최되는 "중국 정책 변화와 제주의 대응 방안" 세미나는 매우 시의적절하다고 생각되며, 제주발전연구원은 오늘 발표와 토론에서 논의된 내용들이 제주특별자치도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본 세미나의 중요성에 대해 공감하시고 바쁘신 와중에서도 흔쾌히 주제발표를 승낙해주신 서창배 부경대학교 교수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토론의 진행을 맡아주실 김동욱 제주대학교 교수님과 토론을 해주실 김철빈 한중지역경제협회장님, 김형근 신라대학교 교수님, 양기철 제주특별자치도 국제통상국장님, 오광진 한국경제신문 디지털전략부장님, 정지현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중국권역별 · 성별연구단 팀장님께도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15년 5월 6일
제주발전연구원장 강 기 춘

제주발전연구원 개원 18주년 기념 세미나

중국 정책 변화와 제주의 대응 방안

주제발표 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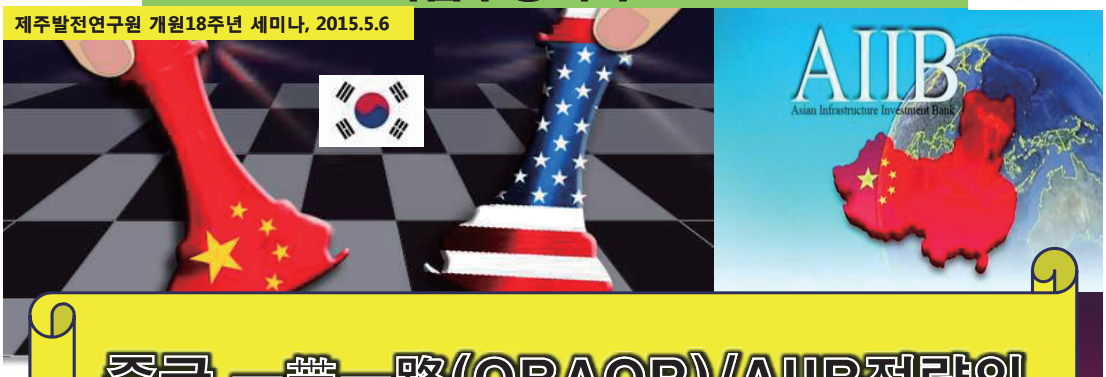
중국 일대일로/AIIB 전략의 정치 · 경제적 함의와 제주경제

서 창 배(부경대학교 국제지역학부 교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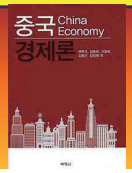


부산/울산/경남지역 中國硏究의 중심, 국립부경대학교!!!

제주발전연구원 개원18주년 세미나, 2015.5.6



중국 一帶一路(OBAOR)/AIIB전략의 정치/경제적 함의와 제주경제



서창배 (徐暢培, C.B. SEO)
국립부경대학교 국제지역학부 (중국학전공)
010-5099-0066 / rainmaker@pknu.ac.kr

寻找 2015 中国经济 新引擎







자료: http://3g.news.cn/html/797/81693.html [검색일: 2015.01.03]

부경대학교 국제지역학부 서창배



1. 중국의 '大周边 선점 전략'과 지역협력

부경대학교 국제지역학부 서창배

1-1) 중국의 '大周边' 전략

- '大周边'이란?
- ➢ 동아시아를 주축으로 南亞/中央亞/西亞/러시아/호주 등 아·태 지역에 이르기까지 중국 주변지역을 정의 ➔ 중국은 FTA 파트너를 정할 때 '大周边' 국가를 우선 고려

- 习近平주석, '大周边'국가 중심으로 자유무역지대 확대하는 '大周边 선점 전략' 강조, 한·중 FTA 가서명을 동력 삼아 東北亞/東南亞와의 FTA 협상에 속도 낼 것이라고 전언
- ➢ APEC 21개 회원국은 2014.11월 중국 베이징에서 아·태 자유무역지대(FTAAP) 실현 위한 '베이징 로드맵(北京线路图)' 채택
- ➢ 베이징 로드맵은 아·태 지역의 제도적 경제통합을 위한 중국의 실질적인 노력이 반영, 베이징 로드맵 채택으로 인해 중국과 아·태 국가들의 관계는 더욱 긴밀해질 것으로 예상
- ❖ 베이징 로드맵(北京线路图): APEC 21 회원국간 FTA 체결, 하나의 경제블록 형성 구상도

- 그 외, 중국 내륙은 2003년 홍콩·마카오 특별행정구와 포괄적 경제동반자 협정(CEPA) 체결
- ➢ 2006.1월부터 홍콩·마카오를 원산지로 하는 화물에 대해 무관세 적용
- ➢ 중국 내륙은 2014.12월 홍콩·마카오와 서비스무역 자유화 협정을 체결, 이로 인해 중국 내륙과 홍콩·마카오와의 교류 증진 예상
- ❖ 서비스무역자유화 협정(港澳地区服务业在广东实现完全自由化的协议): 중국정부가 홍콩·마카오 서비스 무역종사자가 广东省에서 자유롭게 서비스무역 업무 가능하도록 외자기업 규정 未적용하겠다는 내용

부경대학교 국제지역학부 서창배

1-2) 배경 및 根源:

"지역경제협력 참여 전략"(具備區域經濟合作基礎: 商務部初定中國策略, '05.7월, 중국商務部 정책연구실) ➔ 다차원적인 지역협력체제에의 적극 참여
➔ 주변국과의 협력, 시장개척, 주요 자원.에너지 확보 등의 원칙 제시
➔➔ 大주변선점 전략 및 지역별 경제협력 방안 제시

- 중국 주도하의 아시아경제협력관계 구축: ASEAN, 홍콩.마카오 등
  ➔ 2010년 미주 및 EU와 대등한 동북아중심의 지역경제협력지대 구축
- 동북아 지역경제협력 ➔ 동북3성 진흥전략을 촉진
- 자원.에너지 공급원 확보 및 新수출시장 개척: 러시아, 호주, 중동, 중앙아, 아프리카, 남미 등
- 對개도국 경제적 영향력 확대: 브라질, 인도, 멕시코, 남아프리카 등
- FTA 경험 바탕 ➔ 구체적 제품 및 특정분야 고려: 미국.유럽시장 개척
- 일방적 특혜관세(1차산품): 최빈개도국 및 자원 보유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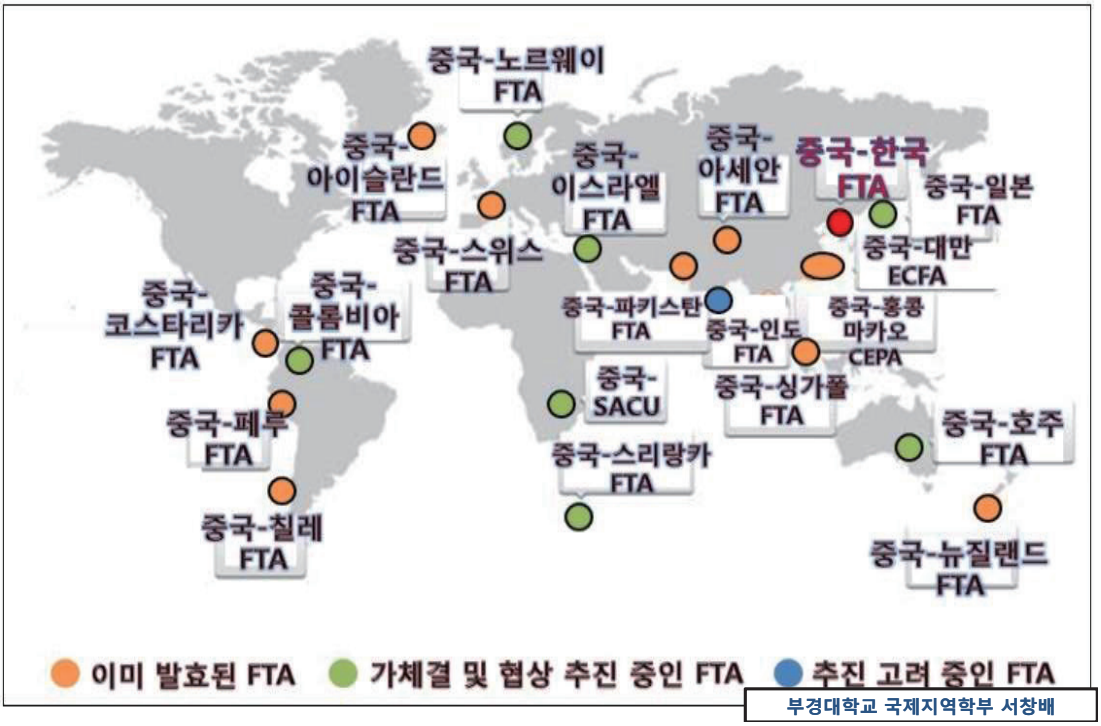
부경대학교 국제지역학부 서창배

1-3) 중국 RTAs 추진 개관

- WTO 출범 이후 RTAs(지역무역협정) 급증,
  - (2015.1월) 발효 건수: 총 395건(상품무역만의 FTA는 228건) 기록 중
- 국제통상환경의 변화로 인해 수출중심의 중국은 지리적으로 인접한 국가 간에 상호 특혜를 주는 지역주의에 동참
  - 현재 중국은 다양한 RTA에 동참, '大周边 선점 전략'과 '一带一路' 등의 정책 통해 영향력 확대 중
- 한·중 FTA 가서명(2015.2)은 중국의 '大周边 선점 전략'정책에 긍정적인 영향 예상
  - 한·중 FTA 발효 후, 중국은 한국과 다양한 분야에서의 협력이 가능해, 저조했던 중국경제 성장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
  - 한국은 중국의 '一带一路' 등 정책에 적극 동참하고 있으며, 이로 인해 양국의 경제협력 범위가 보다 더 넓어질 것으로 예상

부경대학교 국제지역학부 서창배

1-4) 중국의 FTA 추진 현황



부경대학교 국제지역학부 서창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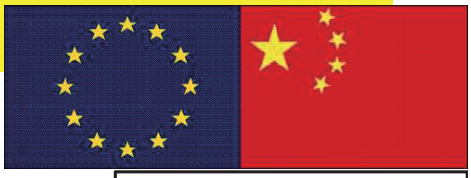
이미 발효된 FTA (12개)		
중국-아세안 FTA	중국-칠레 FTA	중국-파키스탄 FTA
중국-뉴질랜드 FTA	중국-싱가포르 FTA	중국-페루 FTA
중국-코스타리카 FTA	중국-아이슬란드 FTA	중국-스위스 FTA
중국-홍콩 CEPA	중국-마카오 CEPA	중국-대만 경제협력기본협정(ECFA)
가체결 및 협상 추진 중인 FTA (9개)		
중국-한국 FTA	중국-호주 FTA	중국-노르웨이 FTA
중국-스리랑카 FTA	중국-이스라엘 FTA	중국-걸프협력협의회(GCC) FTA
중국-일본-한국 FTA	중국-콜롬비아 FTA	중국-남아프리카 관세동맹(SACU)

(자료원: 우한무역관 자체조사)
- 이외에도, 중국-인도 지역무역협정(RTA)은 추진을 검토 중에 있음.

부경대학교 국제지역학부 서창배



2. 중국 '一帶一路' 전략



부경대학교 국제지역학부 서창배

2-1) 중국 '一帶一路' 계획 추진

➔ 新실크로드정책(一帶)과 海上실크로드정책(一路)
➔➔ 미국의 對中 봉쇄포위망의 무력화 시도(?)

- ◆ 시진핑 정부, 13.5규획의 핵심과제를 '지역경제 발전'으로 결정, 그 실천 방안으로 '一帶一路'계획 추진 ➔ 시진핑 정부가 내건 핵심 정책 ➔ 2015 중국 외교의 Keyword (by 왕이(王毅) 외교부장, CCTV, 2015.3.8)
- ➢ '一帶一路'계획 통해 육로 및 해상 교역로 확보, 타국과의 협력 강화해 대외경제협력 확대, 자원 확보, 경제대국 지위 유지 등 성과 기대
- ◆ 중국 상무부, '一帶一路'계획 추진의 핵심인 65개 국가와의 FTA 체결 방안을 모색 중, 특히 2015년 GCC/이스라엘/스리랑카 FTA 협상 중점 추진해 '一帶一路'계획의 실행 가능성 제고 예정
- ➢ '一帶一路'계획과 관련된 65개 국가와 협력 추진에 있어 한·중 FTA가 모범이 될 것! (by 上海证券报)

부경대학교 국제지역학부 서창배

❖一帶一路(One Belt And One Road): 주변국들과의 경제협력 동반자관계를 맺어 21세기형 실크로드 경제벨트를 구축하겠다는 구상 ➔ 상호 연결/소통 인프라 구축
➢一帶(One Belt): 중국과 중앙아시아-유럽을 연결하는 '실크로드경제권(丝绸之路经济带)'을 의미 ➔ 육상 경제 회랑(回廊) 건설
➢一路(One Road): ASEAN국가들과의 해상협력을 기초로 東南亞에서 출발해 西南亞를 거쳐 유럽-아프리카까지 이어지는 '21세기 해양실크로드(21世纪海上丝绸之路)'를 의미 ➔ 해상 협력 거점 건설

“일대일로” 重大事



2014年2月
国家主席习近平与俄罗斯总统普京

2014年3月
国务院总理李克强在《政府工作报告》中介绍2014年重点工作时提出

2014年5月19日
作为“丝绸之路经济带”首个实体平台

2013年9月7日
习近平总书记访问哈萨克斯坦时提出

2014年11月
习近平总书记在中央财经领导小组第八次会议中强调

2013年10月3日
习近平总书记在印度尼西亚国会发表演讲时提出

2014年11月
习近平总书记在2014年中国APEC峰会上宣布

2013年12月
习近平总书记在中央经济工作会议上提出

2014年12月
2014年中央经济工作会议提出优化经济发展空间格局

자료: http://kr.xinhuanet.com/2015-01/05/c_133897642.htm **[검색일: 2015.01.06]**

부경대학교 국제지역학부 서창배

부경대학교 국제지역학부 서창배



자료: 한경Business, 중국판 마셜플랜 '新실크로드', 2015-03-16



자료: 한국경제, '팍스 시니카'를 향한 중국의 야심…신(新) 실크로드를 꿈꾸다, 2015-03-26



자료: 한겨레, "당나라 때 영광 다시한번"…중국, 육·해상 '신실크로드' 뚫기, 2014-12-07

그림 1. 중국 一帶一路(뉴실크로드) 프로젝트



자료: 언론보도, KDB대우증권 리서치센터

육로 통한 안정적 석유 공급 위해… 인접國 정상들과 잇단 회담

신장위구르 카스~중동 연결 키르기스스탄·우즈베크 등에 SOC 건설 100억弗 지원키로

올해 중국내 구간부터 착공 이르면 6년내 완공 가능성



제2 유라시안 남부 횡단철도

구간: 중국 신장(新疆) 카스(喀什)~로테르담
건설기간: 현재 계획 중(중국 내 구간은 올해 착공)
총 연장: 미정
주요 경유국가: 중국~키르기스스탄~우즈베키스탄~투르크메니스탄~이란~터키

시베리아 횡단 철도(TSR·Trans-Siberian Railyway)

구간: 블라디보스토크~로테르담
건설기간: 1891~1916
총 연장: 약 1만3000km(러시아 구간 9289km)
주요 경유도시: 블라디보스토크~하바로프스크~울란우데~이르쿠츠크~노보시비르시키~예카테린부르크~모스크바~브레스트~로테르담

유라시안 남부 횡단 철도

구간: 중국 장쑤(江蘇)성 렌윈강(連雲港)~로테르담
건설기간: 1991~2011
총연장: 10900km
주요 경유도시: 렌윈강~시안(西安)~우루무치~아스타나~바르샤바~민스크~뒤스부르크

그림1 중국의 '新실크로드'



자료: 이베스트투자증권 리서치센터

陸上 실크로드(一帶)

◆(과거) 비단길 통해 유럽과 무역 ➔ (현재) 실크로드를 따라 독일을 지나 스페인 마드리드까지 연결되는 철도 개통(2014.11)

➢세계 최장 노선(13,000km)

➢2014.11월, (상하이/항저우 인근) 이우(义乌)市~스페인 마드리드까지 화물 노선 개통

➢2015.2월, 중국 충칭(重庆)~독일 함부르크까지 화물노선 및 쟝쑤(江苏)성~카자흐스탄까지 정기 화물열차 노선 개통

부경대학교 국제지역학부 서창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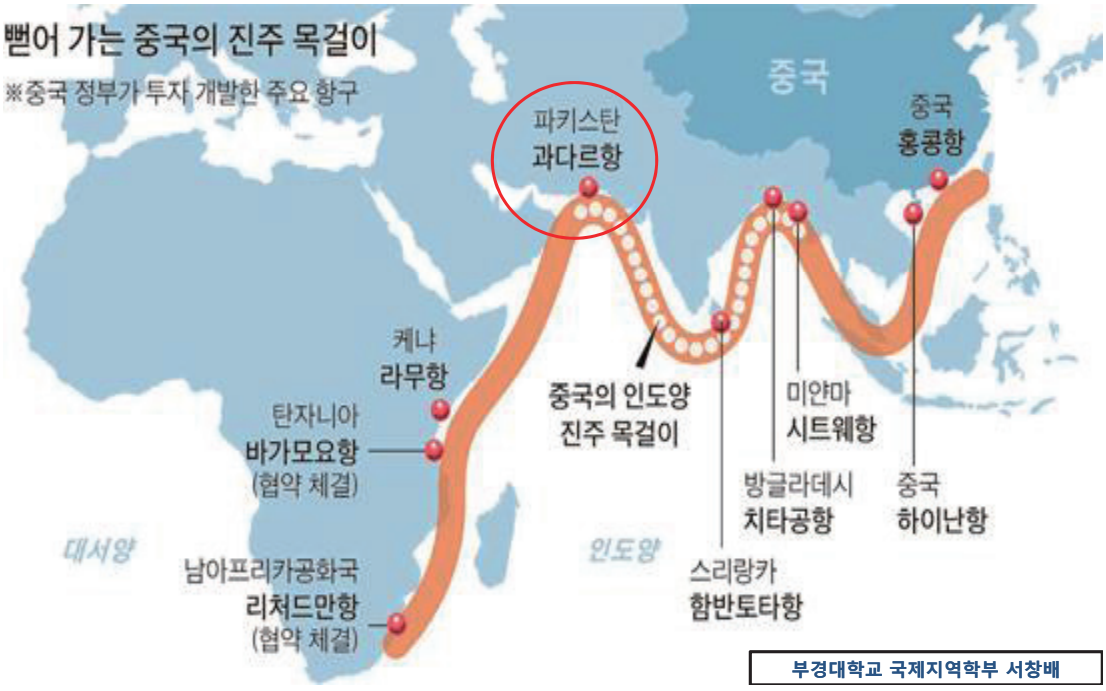
❖ 이우시에서 출발하여 마드리드로 가는 중국 화물열차



海上실크로드(一路)

➔ 진주목걸이(String of Pearls)계획?

: 항구와 항구를 촘촘히 이어나가며 항로가 엮이는 것이 진주목걸이가 목에 걸린 모습과 유사





부경대학교 국제지역학부 서창배

PROSPECTIVE FOUNDING MEMBERS >>



3. '一带一路'전략과 AIIB의 연계

부경대학교 국제지역학부 서창배

3-1) 一帶一路전략과 AIIB와의 연계

❖ Why "아시아/인프라/투자/은행"인가?

① Why Asia? ➔ 大周边 선점전략의 일환, 중국으로부터 전방위 확대 및 미국의 봉쇄망을 뚫는 것!

② Why Infrastructure? ➔ 철도/도로/항구/항만 터미널/도시 (AIIB는 新실크로드계획을 염두에 둔 전략)

③ Why Investment? ➔ 공급과잉 상태인 중국 내부의 경제적 필요성

④ Why Bank? ➔ 중국의 막강한 경제력에 근거, 각국의 자발적 참여를 China Money로 유도



부경대학교 국제지역학부 서창배

❖아시아인프라투자은행(亚洲基础设施投资银行, Asian Infrastructure Investment Bank, AIIB)

➢중국이 제안하여 주도적으로 추진 중인 국제금융기구

➢미국 등 선진국 주도의 IMF, World Bank, ADB 등을 대체, 보완하는 것이 목적

➢2015.4.15 현재, 가입국은 57개국 ➔ 북미대륙 제외한 나머지 대륙은 최소 1개국 이상참여

아시아인프라투자은행(AIIB) 개요

명칭	아시아기초시설투자은행(Asia Infrastructure Investment Bank)
본부	중국 베이징(北京)
자본금	1,000억달러
주요업무	교통 에너지 전기 통신 농업 도시발전 등과 관련된 아시아 국가의 기초시설 건설 원조-융자, 대출, 지분 투자, 담보 제공 등
지배구조	1.총회-최고권력기구 2.운영이사회-매년 정기 회의 소집 중요 정책 결정 3.사무국-감독기구, 공개 포용 투명 인사 원칙
창립 회원국 (괄호안은 신청 서명 또는 참여 의사 발표 시점)	방글라데시 브루나이 캄보디아 중국 인도 카자흐스탄 쿠웨이트 라오스 말레이시아 몽골 미얀마 네팔 오만 파키스탄 필리핀 카타르 싱가포르 스리랑카 태국 우즈베키스탄 베트남(2014년10월24일 · 21개국) 인도네시아(10월25일) 몰디브(12월31일) 뉴질랜드 (2015년1월4일) 사우디아라비아 타지키스탄(1월13일) 요르단(2월7일) 룩셈부르크(3월11일) 영국(3월12일) 프랑스 독일 이탈리아 (3월16일) 스위스(3월20일) 오스트리아(3월24일) 한국 터키(3월26일) 호주 러시아 브라질 네덜란드 덴마크 그루지아(3월28일)
특징	1. 일부 국제기구들이 지분율에 따라 결정권을 행사하던 것과 달리 평등한 협상을 통해서 주요 의사 결정 2. 기초 시설 뿐 아니라 생산성 투자도 가능해 투자 범위 광대, 융자 방식도 지분 투자 뿐 아니라 상업은행 협력이나 양로기금 협력 등도 가능 3. 상업적 원칙에 따라 운영

일대일로(一帶一路 · One Belt One Road) 세부계획

배경	시진핑 중국 국가 주석 제창, 2,000년전 실크로드 재현, 평화 발전 협력 공영의 새로운 시대
원칙	개방 협력, 화해 포용, 시장 운용, 상호이익공영
협력 주요 내용 (5통)	정책소통 - 정부간 협력 시설연통(聯通) - 교통망(도로 철도 항구)과 통신망, 에너지 운송과 저장 등과 관련된 기초시설(송유관 가스관) 건설 무역창통 - 자유무역지대 및 투자무역협력대상 확대 자금융통 - 위안화의 국제화와 AIIB 및 브릭스(BRICS)개발은행 추진 민심상통 - 문화교류 강화
협력기구	상하이협력기구(SCO) 중국 · 아세안10+1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아시아유럽정상회의(ASEM) 아시아협력대화(ACD) 아시아교류신뢰구축회의(CICA) 등

자료: 한국일보, 2015.03.29, 시진핑 일대일로 건설은 중 독주 아닌 관련국들 합창

부경대학교 국제지역학부 서창배

3-2) AIIB 운영 원칙과 경제적 효과

운영 원칙

◆ 포용성, 개방성, 투명성, 공정성, 환경, 노동, 세이프가드, 수혜국 부채, 융자, 지급보증, 지분투자 등을 통해 낙후된 지역에 대규모 인프라 투자

◆ 아직 정식으로 출범하지 않았으며, 창립 회원국 마감일은 2015년 3월 31일

경제적 효과

◆ 현재 美/日/캐나다/멕시코 제외한 G20 모두 참여

◆ 독일, 스위스, 영국, 중국, 브라질, 러시아, 대한민국, 인도 등 지역 경제 强國이 참여

➢ 인프라 구축의 경제력 확보에는 어려움 없는 상태

◆ 벨기에 제외한 西유럽(Western Europe) 국가들도 참여

➢ 이들의 GDP 수준은 상대적으로 높은 수준

부경대학교 국제지역학부 서창배

❖ AIIB 참여국(57개국)의 GDP 합계(2014): 45조 4,301억$ ➔ 전세계 GDP의 58.73%
➢ IMF가 발표한 2014년 전세계 GDP 총합(189개국): 77조 3,448억$
➢ GDP 순위 1~10위 중, 미국(1위)/일본(3위)를 제외한 모든 국가 참여

AIIB 참여국들의 면모

(자료: 아주경제, 2015.04.20)

57개 창립회원국 GDP규모順

◆ **1~10위국(8國):** 중국(2위), 독일(4위), 프랑스(5위), 영국(6위), 브라질(7위), 이탈리아(8위), 러시아(9위), 인도(10위)

◆ **11~20위국(8國):** 호주(12위), 한국(13위), 스페인(14위), 네덜란드(16위), 인도네시아(17위), 터키(18위), 사우디아라비아(19위), 스위스(20위)

◆ **22~50위국(18國):** 스웨덴(22위), 폴란드(23위), 노르웨이(26위), 오스트리아(27위), UAE(29위), 이란(30위), 태국(32위), 덴마크(33위), 남아공(34위), 말레이시아(35위), 싱가포르(36위), 이스라엘(37위), 필리핀(39위), 이집트(40위), 핀란드(41위), 포르투갈(47위), 카자흐스탄(48위), 카타르(49위)

◆ **53~100위국(11國):** 네덜란드(53위), 베트남(55위), 방글라데시(56위), 쿠웨이트(57위), 오만(64위), 아제르바이젠(65위), 스리랑카(67위), 미얀마(69위), 룩셈부르크(70위), 우즈베키스탄(71위), 요르단(90위)

◆ **100위 이상~(11國):** 네팔(107위), 부르나이(110위), 캄보디아(111위), 아이슬란드(114위), 조지아(115위), 몽고(129위), 라오스(130위), 몰타(134위), 타지키스탄(136위), 몰디브(141위), 키르키스스탄(142위)

❖ **파키스탄:** 2014년 GDP 未공개, 2013년 세계 46위

지역별 / 주요 국제기구참여별

◆ 지역별: 亞太(37國), 유럽(18國), 美洲(1國, 브라질), 아프리카(1國, 남아공)

❖ 러시아: 亞太(지분 75%)로 가입

◆ 美의 주요 우방국 대거 참여: 영국/한국/호주 등

◆ G7 참여국: 영국/프랑스/독일/이탈리아 등

◆ UN안보리 상임이사국(5國) 참여: 美제외한 4개국 동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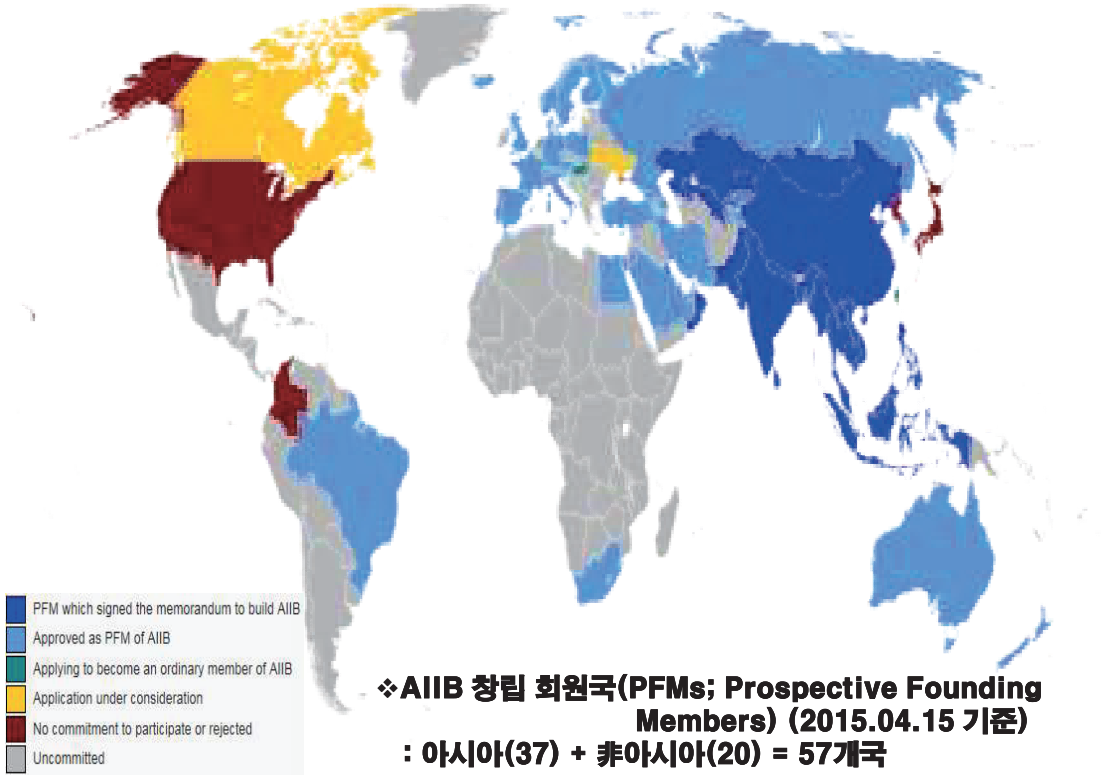
◆ EU(28國) 참여국: 14개국

◆ OECD(34國) 참여국: 21개국

부경대학교 국제지역학부 서창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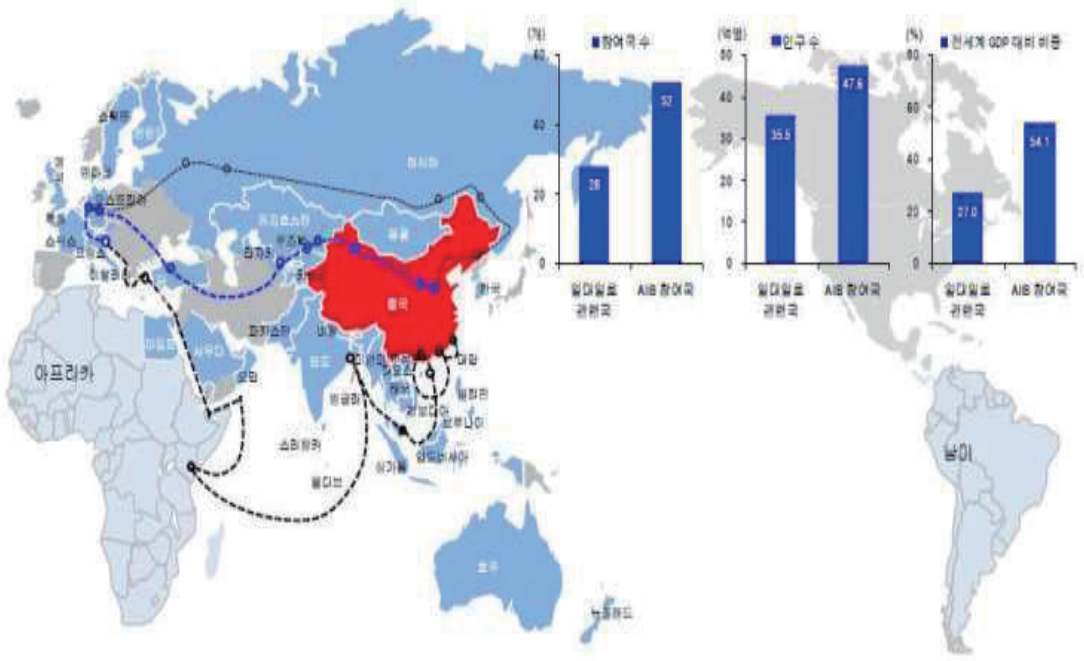
3-3) AIIB 참여국 분포

부경대학교 국제지역학부 서창배



❖AIIB 창립 회원국(PFMs; Prospective Founding Members) (2015.04.15 기준)
: 아시아(37) + 非아시아(20) = 57개국

AIIB 주요 참여국 및 일대일로 구상도



자료: ADB, 신한금융투자

3-4) AIIB에 대한 각국의 반응

◆ 현재 가입 검토 중: 캐나다, 벨기에, 아르헨티나, 우크라이나, 멕시코 등
➢ 美國의 우방국인 한국, 영국, 오스트레일리아, 이스라엘 등 가입으로 AIIB가입 진지하게 고민 중

◆ 최근에는 일본/미국 내에서도 가입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지만 양국 정부 모두 가입에 신중
➢ 일본, 2015.6월 가입 입장 밝혔으나 확실하지는 않은 상태
➢ 세계은행 총재(김용), AIIB를 협력적 파트너로 생각하고 있다고 강조
➢ ADB 총재(나카오 타케히코), 거대 기반시설의 금융적 요구가 아시아에 있고, AIIB설립은 정상적 단계
✓ AIIB 설립되면 ADB는 적절한 고려할 것이라고 설명, 단, AIIB가 그 지역에서 물품 조달 및 사회적 안보에 대해 최선의 경험을 바탕으로 한 국제적 기준 채택 요구

◆ 북한, 참여 거절당한 상태 및 이유
① 국제금융기구 가입時, 각종 사회·경제적 통계수치/자료 정기적 제출 필요→이를 거부했기 때문
② 미국/유럽의 AIIB 투명성 의구심 표명한 상황→중국, 북한의 가입 요청 수용 어려웠기 때문

◆ 현재 참여 입장 유보한 국가: 일본, 이란, 미국, 콜롬비아 → 북한도 참여 유보국으로 분류

v·d·e·h 아시아 인프라 투자 은행 (AIIB) [숨기기]

창립 회원국	중국 · 영국 · 말레이시아 · 인도네시아 · 싱가포르 · 필리핀 · 라오스 · 브루나이 · 캄보디아 · 미얀마 · 타이 · 베트남 · 인도 · 대한민국 · 오스트리아 · 독일 · 룩셈부르크 · 이탈리아 · 프랑스 · 스위스 · 뉴질랜드 · 파키스탄 · 네팔 · 방글라데시 · 오만 · 카타르 · 사우디아라비아 · 요르단 · 홍콩 · 스리랑카 · 우즈베키스탄 · 타지키스탄 · 카자흐스탄 · 몰디브 · 쿠웨이트 · 터키 · 몽골 · 러시아 · 브라질 · 오스트레일리아 · 조지아 · 네덜란드 · 스페인 · 이집트 · 핀란드 · 노르웨이 · 키르기스스탄 · 이란 · 아랍에미리트 · 몰타 · 남아프리카 공화국 · 포르투갈 · 폴란드 · 아이슬란드 · 이스라엘 · 아제르바이잔 · 스웨덴
일반 회원국	중화 타이베이[1] · 헝가리
참여 검토국	캐나다 · 벨기에 · 아르헨티나 · 우크라이나 · 멕시코 · 바레인 · 아일랜드 · 일본[2]
참여 유보국	미국 · 콜롬비아

1: 타이완은 현재 가입 검토 중으로, 일반 회원국 지위는 중국 측과의 협상 후 발표될 예정이다.
2: 일본은 참여를 검토 중이기는 하지만 자주 참여 유보의 입장을 보이기도 했다. 2015년 4월 초 AIIB에 지원기금을 출연했다. 또한, AIIB 가입을 긍정적으로 검토한다는 입장을 밝혔으나 이것이 실현될 지는 미지수이다.

부경대학교 국제지역학부 서창배



4. 정치/경제적 목적

부경대학교 국제지역학부 서창배

4-1) 경제적 목적 (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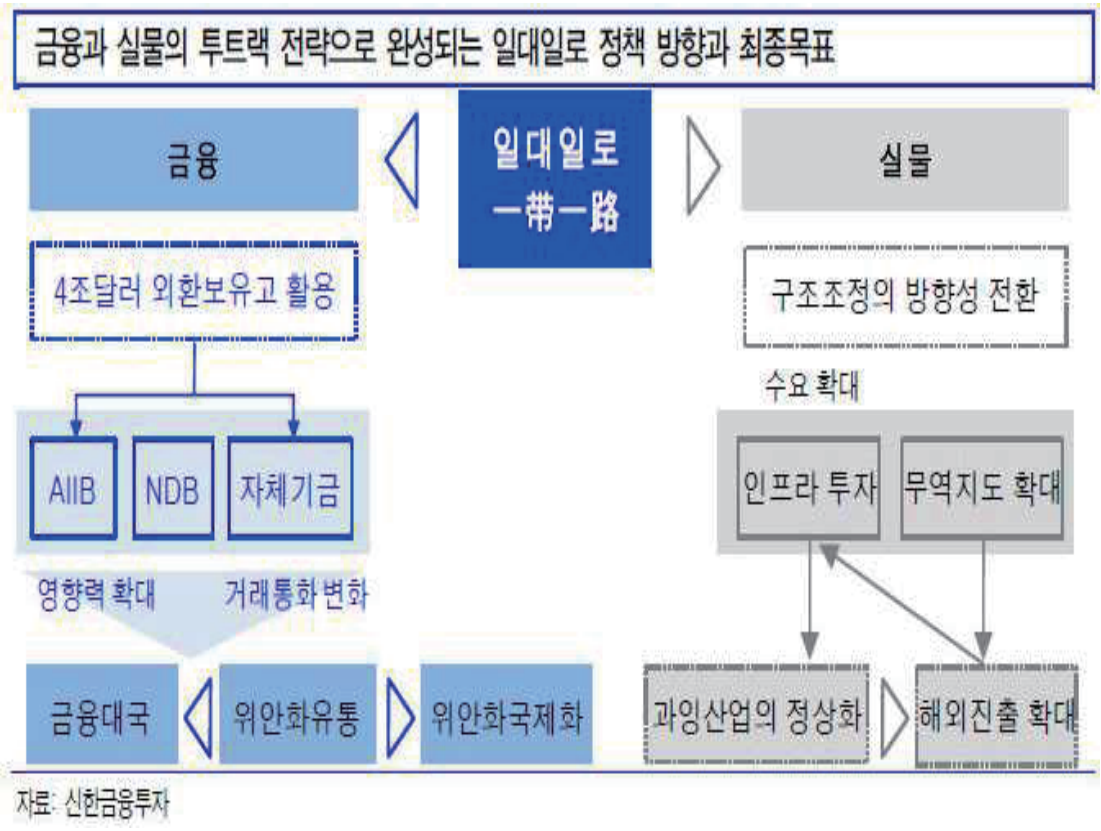
(*1~4는 프레시안/신금미(원광대) 교수 참조;
5~7은 서창배, 중국의 FTA정책에 담긴 정치/경제적 함의 참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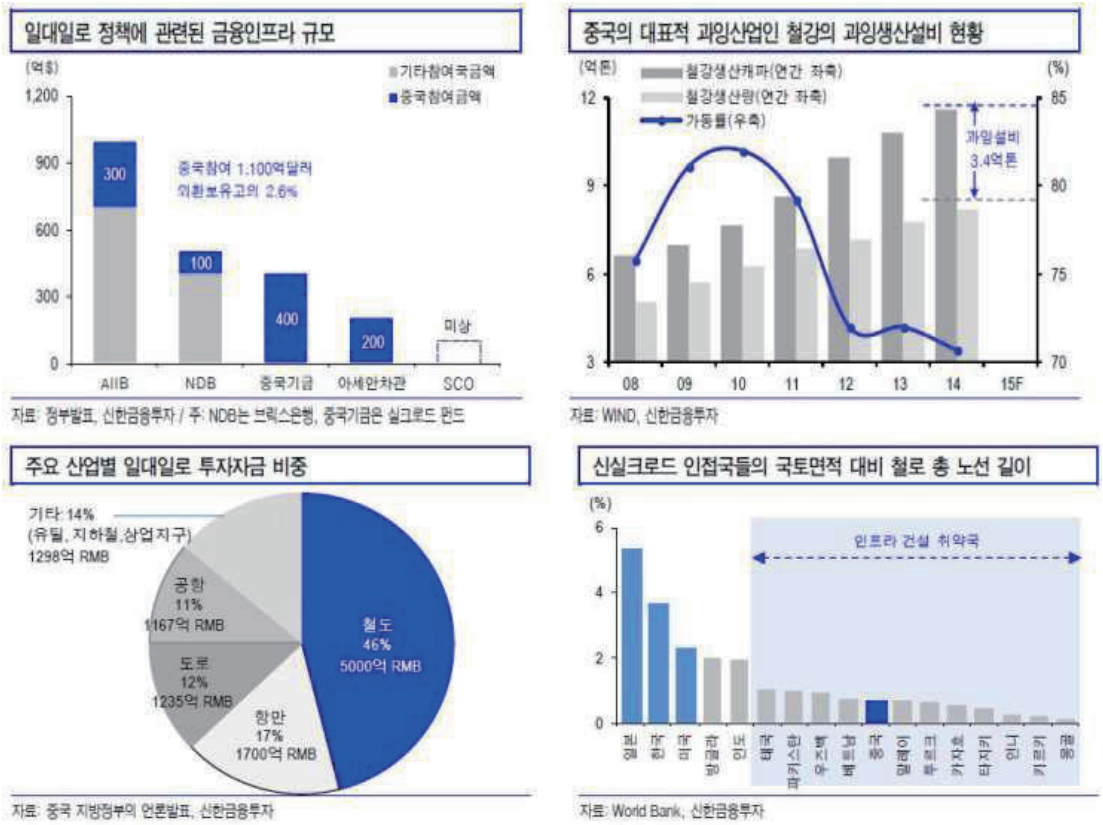
① **(중국의 공급과잉 문제 해결):** (과거) 양적 성장을 위한 산업육성정책 실시 통해 연평균 10% 이상의 경제성장률 달성(특히, 철강산업의 공급과잉 문제 심각) ➔ AIIB 통해 국내 과잉 생산된 인프라 건설 자재 수출함으로써 국내 공급과잉 문제 해결

② **(무역시장 확대): (**중)베이징~(이라크)바그다드 철도 건설 등 新실크로드 구축에 필요한 자금 및 아시아지역의 대규모 기반시설 구축사업에 투자 지원 예정 ➔ 수출시장 다변화

③ **(중국 외환보유액의 합리적·효율적 이용 가능한 플랫폼** 역할 수행): (현재) 중국, 세계 최대 외환보유국(4조$) ➔ 중국의 적정 외환보유액은 2조$로 평가(**즉, 더 이상 중국은 美재무부의 T-Bond를 매입하지 않겠다는 의지 표현?)**

부경대학교 국제지역학부 서창배





4-1) 경제적 목적 (2)

(*1~4는 프레시안/신금미(원광대) 교수 참조;
5~7은 서창배, 중국의 FTA정책에 담긴 정치/경제적 함의 참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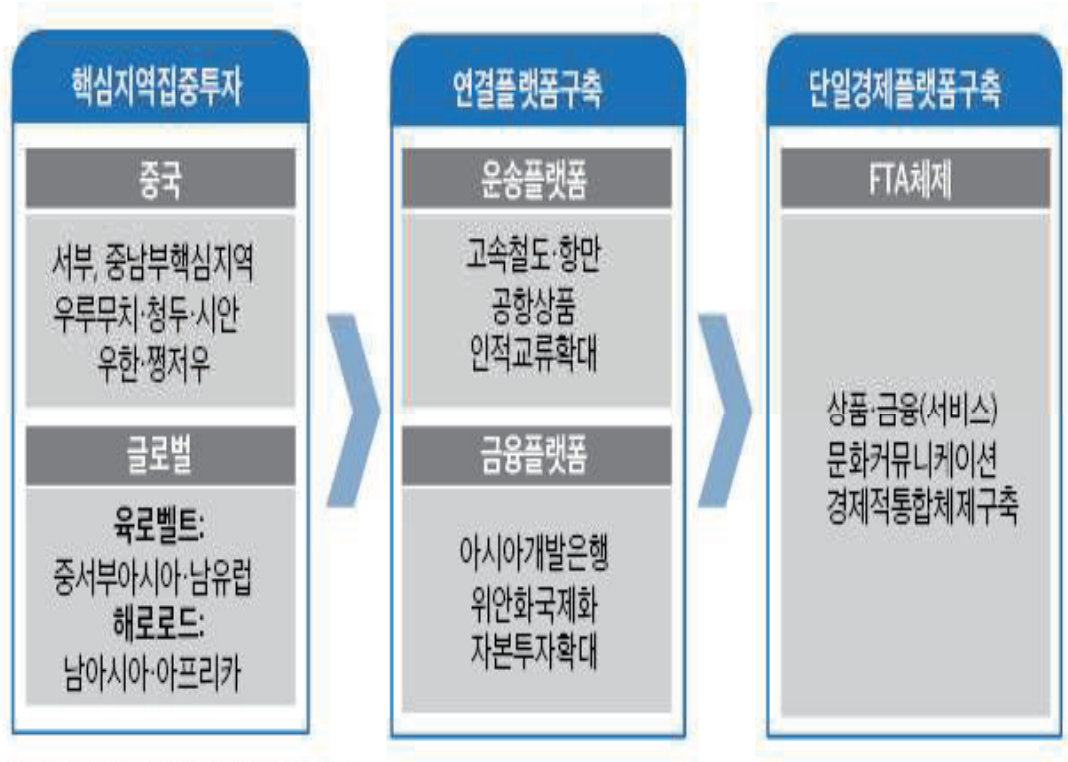
④ **(아시아 중심의 RMB 국제화** 실현):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RMB의 무역결제 확대, 위안화 표시 채권 발행 등 RMB 국제화 적극 추진 ➔ RMB 기축통화화 등을 통한 중국경제의 국제화 전략

⑤ **(균형발전전략을 위한 西部大開發사업과의 연계):** 지리적 특성활용(陕西省/西安) ➔ 특히, 유럽을 통하는 새로운 무역로를 개척하여 서부지역의 경제성장을 도모

⑥ **(안정적인 자원/에너지 확보):** 러시아/GCC/호주/뉴질랜드 등 자원보유국과의 관계 개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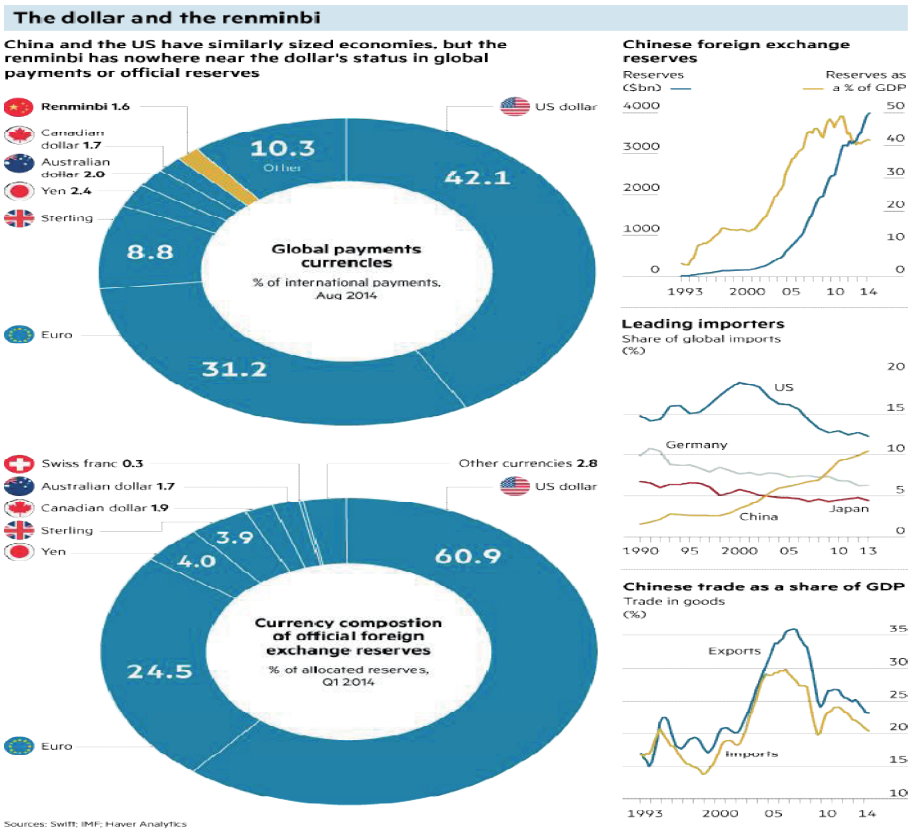
⑦ **(지역주의 확산에의 대응):** 경제협력 통한 역내 경제 안정화 ➔ '97년 아시아금융위기 계기, 역내 경제협력 중요성 인식

부경대학교 국제지역학부 서창배



자료: KIEP, 上證研究院, 언론보도

부경대학교 국제지역학부 서창배



◆ 2016부터, (中)NDB 통해 세계인구 43%인 BRICS국에 RMB 유통, 동남아에서 RMB블록권 형성

➔ 확대 전망

4-2) 정치/외교적 목적(1)
➔ G-2의 본격적인 경쟁 돌입

① **(미국의 對중국 견제 무력화):** 一帶一路/AIIB 등을 통해 미국과의 정치/외교 전에서 일단 중국 승리

② **(IMF/World Bank/ADB 개혁 촉매제 역할):** 미국/일본 중심의 국제금융 메커니즘에 대한 견제 ➔ 기존 국제금융기구의 개혁 및 변화 촉매제 역할

③ **(역내 정치/외교적 주도권 장악):** 미래의 "東亞자유무역지대" 설립시 주도권 확보 가능

AIIB, ADB, IBRD 등 국제개발은행 비교

	아시아인프라투자은행(AIIB)	아시아개발은행(ADB)	국제부흥개발은행(IBRD)
설립 시기	2015년 말(예정)	1966년 8월	1945년 12월
설립 목적	아시아 인프라 개발 융자	빈곤 감축 및 개발 자금 융자	
본부 소재지	중국 베이징	필리핀 마닐라	미국 워싱턴
가맹국 수	57개국(4.20 현재)+@	67개국	188개국
자본금	초기 500억 달러(1000억 달러 목표)	1629억 달러	2328억 달러
한국 가입 시기	2015년 03월	1966년(창립 가맹국)	1955년

자료 : 기획재정부

자료: 한경Business, 2015-03-30, 순항하는 아시아인프라투자은행

부경대학교 국제지역학부 서창배

4-2) 정치/외교적 목적(2)
➔ G-2의 본격적인 경쟁 돌입

⑤ **('개도국 대표론' 확대):** 對개도국 인프라 구축 지원 ➔ 향후 DDA 등 多者협상時 자국에게 유리한 협상논리 전개에 유리

⑥ **(中國威脅論 불식):** 對개도국 인프라 지원이라는 경제적 당근을 활용 ➔ 중국의 대규모 가스관 건설 투자 약속, 이후 운영 가스관관리회사 합작설립 제안 때문 ➔ 투르크메니스 탄/타지키스탄/키르기스스탄 등 모두 최빈국에서 탈피하여 경제도약 계기 기대 ➔ 軟性패권주의의 추구 ➔ 중화주의의 확산(?)

⑦ **(주변국과의 신뢰 구축):** 러시아/인도 등 국경선 인접국들과의 전략적 안보 안정 도모

⑧ **(Great Chinese Economic Zone/大中华经济圈의 결속):** 최대 40억 인구 중심의 새로운 中國중심의 패러다임 전개 ➔ 화교경제권의 위상 강화 ➔ **中华主义의 부활(强汉盛唐)**

부경대학교 국제지역학부 서창배

❖ 러시아의 협조 → 중-러 新밀월관계 → 美봉쇄로부터 완화

◆ 미국의 큰 공헌 → 미국의 패착/자업자득

➢ **미국, NATO 동진정책으로 러시아 압박 → 러시아 불쾌**

➢ 우크라이나 사태(2014.2월) 후, 러시아 천연가스 가격인하 바로 체결(2014.5월)

❖ 당초 중국-러시아간 가스공급협약은 가격 문제로 10년간 지지부진

◆ **중국 가스소비량의 23% 향후 30년간 공급 계약 → 동부지역 가스관**

➢ 추가 협의 중 → 중국 서부지역 가스공급 계약

➢ 미국의 對중국 에너지자원 봉쇄전략에 큰 타격

◆ 중-러, 대규모 천연가스 공급계약 타결 (2014.5.21), "30년 장기계약, 410조원 규모…유럽보다 싼 가격"

- 중국석유천연가스집단(CNPC)-러시아 국영가스회사 가스프롬 간에 체결
- 2018년부터 연간 380억㎥의 천연가스 공급
- 중국 소비량의 23%, 가스프롬 수출량의 16%
- 가스 공급량과 전체 계약규모로 볼 때, 1천㎥당 350$ 합의 추산 → 러시아의 對유럽 평균 가스 공급가인 1천㎥당 380$보다 저렴

◆ 380억㎥는 단지 시작일 뿐! (by 밀레르 러 사장)

- 동부노선 계약 이후 서부노선 협상도 시작
- 동부노선: (러)극동지역~(중)동북지역 연결
- 서부노선: (러)서부 시베리아의 알타이지역~(중)서부지역 연결

부경대학교 국제지역학부 서창배

중국, 중동으로 향한 해상실크로드 중동출구 과다르항 확보

http://www.cmnews.kr/?document_srl=331229&ckattempt=1



◆ 중국 에너지안보 구축 의미

- 2015.4월, 개통 예정 → 바닷길 중동 출구 확보
- (높은 경제성)→ 말라카해협(수입원유 80%통과)통한 유조선 석유운송거리(15,000Km)대비 85% 단축
- (봉쇄효과 무용지물化) → 필리핀/괌 미군기지 우회
- (他國항구/도시 건설后 이용) → 우방국 확대
- (군사적 가치) → 과다르항 해군기지화時 인도/美해군 견제 가능(美/인도 반대 이유)

❖ 신장자치구까지 철도/송유관 건설 추진

✓ 철도노선(약 1,800㎞) 중, 중국 카스~파키스탄 수도(이슬라마바드) 구간(1,200㎞)은 2015.상반기 착공 예정

✓ 이슬라마바드~과다르 구간은 기존 파키스탄 철도와 연결

❖ 對파키스탄 지원 규모 → 총 460억$ (약50조원)

✓ (과다르항 건설): 2억$(약 2,200억원), 향후 과다르항 자유무역구 건설 2억$이상 투자 계획

✓ (중~파키스탄 철도 건설): 이미 5억$ 지원

❖ 對스리랑카 콜롬보만 지원 규모

✓ 컨테이너 터미널(대부분 중국 지분): 5억$ (2014.가을, 중국 잠수함 2차례 정박)

✓ 콜롬보만 매립지 항구도시 건설(모나코공국(2㎢)만한 면적): 14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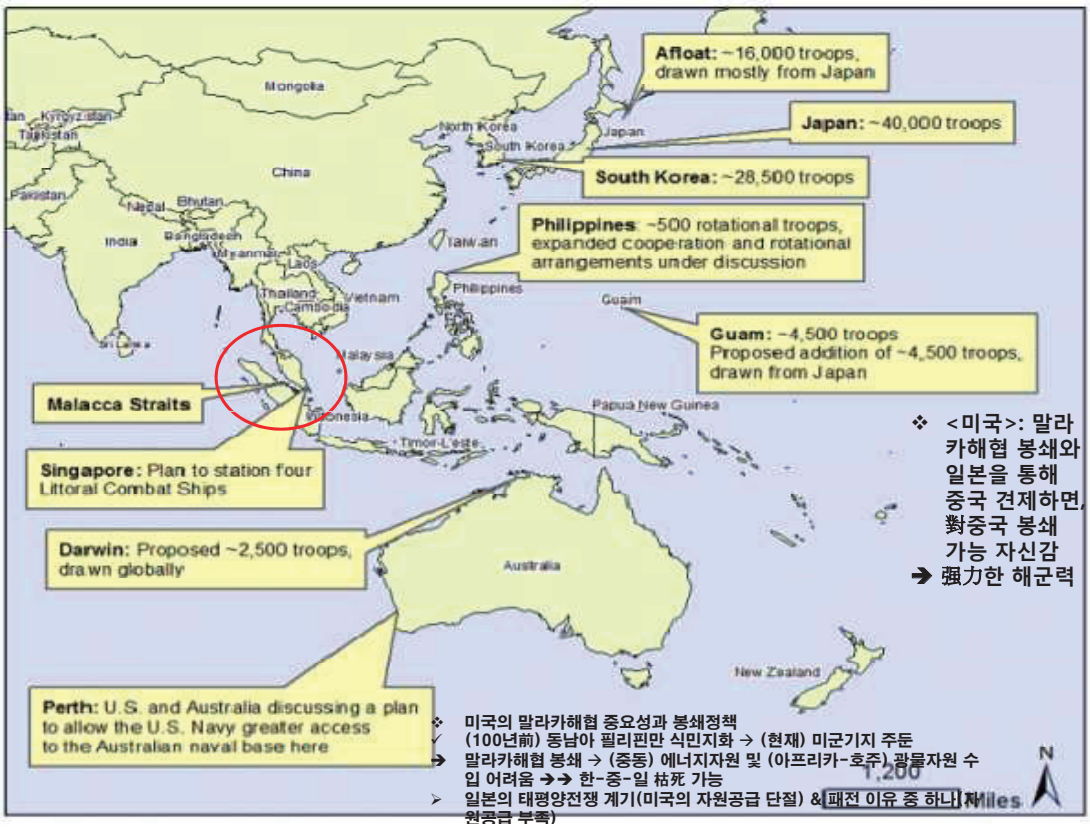
부경대학교 국제지역학부 서창배

미국의 對중국 봉쇄포위망과 해제

서쪽(아프가니스탄): 중국에 매수,
서남쪽(파키스탄/인도): AIIB 참여,
동남쪽(ASEAN): 미국 만류에도 AIIB 참여,
동쪽(한국): AIIB 참여 예상



부경대학교 국제지역학부 서창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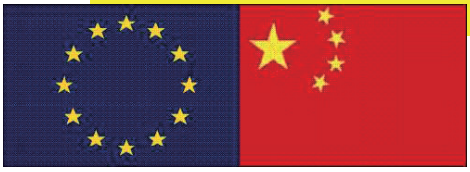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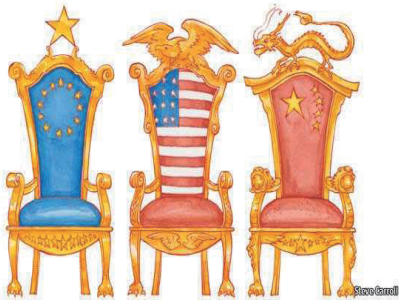
❖ <미국>: 말라카해협 봉쇄와 일본을 통해 중국 견제하면, 對중국 봉쇄 가능 자신감
➔ 强力한 해군력

❖ 미국의 말라카해협 중요성과 봉쇄정책
✓ (100년前) 동남아 필리핀만 식민지화 → (현재) 미군기지 주둔
➔ 말라카해협 봉쇄 → (중동) 에너지자원 및 (아프리카-호주) 광물자원 수입 어려움 ➔➔ 한-중-일 枯死 가능
➢ 일본의 태평양전쟁 계기(미국의 자원공급 단절) & 패전 이유 중 하나 자원공급 부족)



5. 결론 및 시사점





부경대학교 국제지역학부 서창배

5-1) 본격화되는 G-2 패권경쟁(美vs.中)

美주도 IMF체제 흔드는 중국➔'금융패권' 바뀌나

(남지원, 2015.3.19/ http://jiwon.khan.kr/m/post/219)

미·중·일 주도 세계 주요 금융기구

주도국	기구	설립 시기(연)	설립 목적	자본금 (억달러)	회원국 수	주요국 지분현황(%)
미국	세계은행 (WB)	1944	개발도상국에 자금 대출	2232	188	미국(15.85), 일본(6.84), 중국(4.42), 독일(4.00), 영국(3.75), 프랑스(3.75) 등
	국제통화기금 (IMF)	1945	전 세계 금융 안정성 달성	8370	188	미국(17.69), 일본(6.56), 독일(6.12), 프랑스(4.51), 영국(4.51), 중국(4.00) 등
일본	아시아개발은행 (ADB)	1966	아·태지역 개도국 경제발전	1650	67	일본(15.67), 미국(15.56), 유럽연합(14.43), 중국(6.47), 인도(6.36), 호주(5.81) 등
중국	신개발은행 (NDB)	2014	BRICS 등 신흥국 금융협력	500	5	중국·러시아·브라질·인도·남아공이 100억달러씩 출자
	아시아인프라 투자은행(AIIB)	2015(예정)	아·태지역 개도국 경제발전	500	32+α	미정

부경대학교 국제지역학부 서창배

IMF·세계은행, 금융위기 때, 제구실 못해 '회의론'

◆ 2차 대전 이후, 전 세계 금융패권을 쥐고 흔들던 美國이 中國의 거센 도전 직면

➢ 中國주도의 AIIB 창립 둘러싼 갈등은 中國과 美國의 주도권 다툼을 넘어 다국적 금융체제 지각변동의 시발점이라는 분석

◆ 현대 금융질서의 형성, 1944년 브레턴우즈 협정 이후 IMF / 세계은행(WB) 출범

➢ 1971, 고정환율제 폐지와 함께 브레턴우즈 체제도 종말

➢ 美, 세계은행과 IMF를 손에 쥐고 세계금융을 움직이고 지역별 개발은행이 떠받치던 국제금융체제는 견고하게 유지

◆ But, 이 체제는 1990년대 후반 아시아 금융위기와 2000년대 미국발 글로벌 금융위기 거치면서 한계를 노출

➢ 아시아 금융위기 당시, IMF는 차관 제공 댓가로 혹독한 긴축정책 강요 → 해당국 국민들을 고통에 빠뜨린 반면, 국제투자자들의 자금 유출에만 도움줬다는 비판

➢ 사상 초유의 글로벌 금융위기, 자금 부족으로 제대로 대응하지도 못한 한계

➔ 美주도의 국제금융체제가 위기에 전혀 대처하지 못한다는 회의론 부각

부경대학교 국제지역학부 서창배

기존 기구들에 대한 불만 증폭 → 중국 등 신흥국 이해관계와 무관하게 운용

◆ 역대 IMF 수장 = 西유럽 국가, 세계은행 수장 = 미국이 독식!

➢ 특히 전체 지분 85%이상 찬성으로 주요 결정되는 IMF는 유일하게 지분 15%이상 소유한 美國만 거부권 행사 가능 구조

➢ 버락 오바마 정부, 신흥국의 지분 늘려 IMF 재원 확대 주장 → 공화당의 반대로 美의회에 계류 중

◆ 아시아도 유사한 상태

➢ ADB 역대 총재 9명 = 모두 일본인

➢ 중요 개발 계획, 지분 15%씩 보유한 美/日이 협의해 결정

➢ 사실상 美/日이 주도하는 은행

➢ ADB의 중국 지분, 6.47%에 불과

부경대학교 국제지역학부 서창배

美개혁 늦춘 동안, 中國주도의 AIIB 참여 57개국으로 확대

◆ 美國이 개혁 요구 묵살, 손 놓고 있던 사이 中國은 새로운 국제금융기구를 연이어 창설
➔ 美國주도의 국제금융질서에 무섭게 도전 중

➢ 中, 2014.7월 BRICS 5개국의 新개발은행(NDB; New Development Bank) 설립협정 체결 주도

➢ AIIB, 영국을 포함해 프랑스/독일/이탈리아 등 미국의 맹방들을 대거 유입

◆ AIIB 참가국

➢ 2014.11월, 아시아 21개국 서명 & 출범 확정 ➔ 2015.4월(5개월만), 57개국으로 확대

◆ (by the Economist), 2014년 NDB 설립 확정 당시, "신흥국들의 입장에서는 IMF/세계은행의 주도권 빼앗기보다 경쟁기구 설립이 더 쉬웠을 것"이라고 주장

➢ 中, 新국제금융기구 통해 美國과의 단순 기싸움이 아닌 국제금융시장을 재편해 주도권을 빼앗기 위함이라는 의미 ➔ 놀란 미국, 다시 IMF 개혁 목소리가 커지고 있는 상태

➢ 제이컵 루 美재무장관, 2015.3.17일 "동맹국 포함한 다른 나라들이 IMF/다자기구에서 美 역할에 의구심 표출은 우리가 IMF 지배구조 개혁에 실패했기 때문"

◆ 단, AIIB가 전 세계로부터 자금 동원 성공해 명실상부한 '다자간 협력'체제 될지는 아직 미지수

➢ 中, 3.84조$의 외환보유액을 바탕으로 강한 드라이브를 진행 중이나, 美國처럼 반세기 넘게 전 세계에 자금을 공급할 의지/능력 있는지는 불투명

➢ 전 세계에서 자금 동원 못하고 China Money만 운영되는 기구가 될 위험성도 존재

부경대학교 국제지역학부 서창배

5-2) What is *National Interest*(国家利益)?

◆ 중국 '一带一路'/AIIB ➔ 한국경제에의 긍정적 영향 예상

➢ 박근혜 정부, 중국 '一带一路' 계획에 따른 육로/해상 교통망 구축 ➔ 향후 한국의 대외 진출에 유리 강조

➢ 특히, 한국 '유라시아 이니셔티브'*/러시아 유라시아연합/터키 실크로드 프로젝트 등과 경제적 이해 공유 ➔ 적극 동참을 통한 한-중 경제협력 범위 및 한국의 유라시아 진출 확대 계기 예상

❖ 유라시아 이니셔티브(Eurasia Initiative): 유라시아 역내국간 경제협력 통해 경제 활성화 및 일자리 창출 기반 조성, 유라시아 국가로 하여금 북한의 개방 유도를 통해 한반도 긴장 완화 및 통일 기반 구축 구상

AIIB 주요 창립회원국들의 전략

국가	전략
중국	▪육/해상 실크로드 구축 재원 마련 ▪RMB 국제화 가속화
한국	▪인프라건설관련 공사 수주
영국	▪RMB 표시 채권발행 등 통해 역외 RMB허브 지위 강화
호주	▪인프라펀드 통해 AIIB 프로젝트에 투자
러시아	▪시베리아 횡단철도 현대화 등 인프라 투자유치
파키스탄	▪인도 견제 위해 과다르항 개발 ▪철도망 연결에 투자유치

부경대학교 국제지역학부 서창배

RMB 직거래시장 경쟁

- ➢ 한국금융업계의 수익성 개선에도 도움 예상 ➔ 경쟁국과의 RMB 경쟁(직거래시장)에서의 우위 경쟁에 유리 / 적극적인 ODA정책(유/무상원조) 추진도 고려해야
- ➢ 특히 한-중 FTA 체결이 중국 '大주변' 국가와의 협력 촉매 역할
- • 世界经济研究所 쟝위에춘(姜跃春) 소장, 한·중 FTA가 아·태지역내 경제협력/동북아지역 통합 활성화에 촉매 역할 전망
- • 일본의 경우, 한국과 對中 수출분야 비슷 → 적지 않은 타격 예상

  ➔ So, 일본의 적극적인 한·중·일 FTA 추진 전망도 존재

부경대학교 국제지역학부 서창배

一帶一路/AIIB 활용 ➔ 南北韓 統一에의 대비

- ◆ AIIB가 한국의 통일세 부담을 줄여줄 수 있지 않을까?
- ➢ 중국 운영 특성상, 북한의 AIIB가입 가능성 존재
- • 북한 未가입해도 통일時, 북한지역에 도로/철도/항만 등 인프라 건설투자 AIIB로부터 융자 가능 등 큰 도움 예상(한국경제신문, '메기효과' 필요한 한국 경제, 2014.7.8, http://www.hankyung.com/news/app/newsview.php?aid=2014070818941)

- ◆ 통일后 융자규모? ➔ 우리의 AIIB 지분율 확보와 직결된 문제
- ❖ 시진핑, 2014년 한국 방문시 AIIB가입 권유했을 때 지분율 5~7% 제안 ➔ 現) 3~5% 예상 (by 최경환 부총리, 2015.4.20, 중앙일보)

- ◆ 단, 一帶一路/AIIB 추진과정에서 러시아/미국 등 주요국과의 갈등에 대비한 대응책 마련도 필요
- ➢ 새로운 대안 통해 지분율 확보 위한 협상레버리지 필요 ➔ but, 불필요한 오해의 소지 제거
- • 예) "중국과 미국 사이에서 줄타기를 잘 해야 한다. AIIB 참여 가능성을 열어놓되, 미국-일본-호주-한국이 AIIB의 대안이 될 개발투자은행을 신설하고자 할 경우 여기로 갈아타야 한다." 등(이지용(2014), 중국 '一帶一路'전략의 정치경제적 함의와 시사점, 국립외교원 외교안보연구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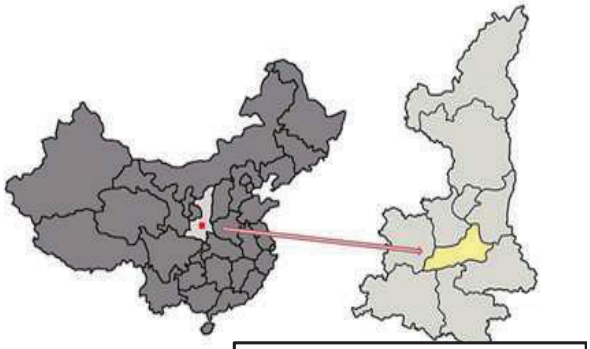
  ➔ BUT, 호주/뉴질랜드/영국이 중국에 동참, 미/일 중심의 새로운 개발투자은행 설립 계획/자금여력 없는 상태

부경대학교 국제지역학부 서창배





6. 제주도 경제에의 영향



부경대학교 국제지역학부 서창배

특히 西安을 중심으로 西北/西南지역 선점효과 기대해볼 필요

- ◆ 현재로서는 직접적인 영향은 적을 것으로 예상
- ◆ But, 관광산업/요식업/화장품/농수산물 등 중심으로 간접적인 영향도 예상
- ➢ 특히, 陝西省 西安을 비롯한 中央亞 등 한국기업 진출지역 주목할 필요
- ➢ 西安은 新실크로드 전략의 핵심지역이 될 가능성 높고, 삼성반도체/SDI 및 향후 관련 밴드업체 200여 개 진출 예상
- ➢ 소비시장 확대로 의류, 식품류 등의 진출도 양호한 상태
- ❖ 교민: 3~5천명 내외 추정 ➔ 대다수 삼성전자 투자 이후 큰 증가추세 → 주로 한국기업 직원/자영업자/학생 등 (섬서성 방문 한국인: (2013) 25.5만명←(2012) 23만명←(2011) 17만명

❖陝西省: 習近平주석의 고향 & 정치적 기반(趙樂際 중앙조직부장 등 同鄕 측근), 한국의 대규모 투자유치에도 영향 평가 ➔ <西咸新区> 개발완료時 1천만 명 인구 ➔ 陝西, 西安 新실크로드 자유무역지구 설립 계획 / 2~3급 신흥도시 산업화(서비스산업/소비) 가속, 고속철 통하는 <경제삼각주> 급부상

부경대학교 국제지역학부 서창배

관광/요식업/화장품/농수산물 등 주목

◆ **제주~西安(陕西省) 항공 및 여행 루트 개발도 고려할 필요**

➢ **다양한 투어루트 개발 ➔ 특히 6개월마다 중국인관광객 설문조사 통해 지속 개선**

❖ 경상북도/경북관광공사, 2014.7.29~8.1, 西安市에서 경북관광홍보설명회 개최

❖ 강원도 양양~서안 전세기 운항, 2015.4.13~17

❖ 제주~서안, JinAir(2015.2월부터) 화/목/일(3h30m)➔수/금/월(3h) 등 일부 존재

◆ **화장품/부티끄類:**

➢ **한류 & 제주도의 청정 이미지를 활용 ➔ 대학가(50개 대학, 77만 명)를 중심으로 로드샵 or 市중심에 체험관(피부test/DIY체험 등) 활용**

◆ **요식업:**

➢ **현재 서비스산업 발전 및 고도화 추진 중 ➔ 제주 청정 한식, 제주브랜드 커피숍 체인, 제주 설록차(고급 茶馆, 다양한 녹차), 수산횟집(제주물항? 등) 등도 모색 필요**

◆ **전기자동차/풍력-태양열 발전/ICT 협력 등도 모색할 필요**

➢ **제주를 시안생산 전기자동차 상용화 시범단지화 모색**

➢ **풍력-태양열 에너지/발전/ICT R&D센터 협력 등 모색 필요** 부경대학교 국제지역학부 서창배

부경대학교 국제지역학부 서창배



❖시장잠재력/지역 R&D 능력 등 고려한 투자 결정(2012.9월 착공 ➔ 2014.5월 1기 준공, 차세대 메모리반도체 양산)
❖협력업체/타지역 진출기업들 관심과 진출(부동산 매입 등) 증가 ➔ 대규모 한인타운도 조성 예정

❖1기 투자액: 70억$, 협력업체 200여개 진출, 일자리 1만여 개 창출 등 예상

카페베네(Cafebene), 서비스산업 진출의 선두주자(?)

➔ 한국보다 1.5~2배 비싼 가격에도 고객 가득

➔ 스타벅스와 쌍벽을 이루는 중



부경대학교 국제지역학부 서창배

한국기업의 對시안 투자진출 증가, 교민수도 크게 증가 예상

◆ 시안진출 한국기업 대부분이 高新技术开发区에 입주

➢ 2014.5월, 삼성전자 반도체 공장 준공

➢ 2013.9월, 삼성전자 시안연구소, 삼성SDS연구소 오픈

➢ 2013.11월, 하나은행 시안분행 설립

➢ 2014.1월, 삼성SDI프로젝트 MOU체결 등

◆ 한국, 2012년 하반기부터 對시안 투자 점증 → 현재 홍콩에 이어 2大 투자국

➢ 삼성 제외한 한국기업의 투자 분야는 대부분 무역, 요식업 등 서비스업에 집중

◆ 시안시의 외국인투자, 제조업에서 점차적으로 3차산업으로 이동

➢ 현재 3차산업의 외국인투자기업 비중 79.9%

➢ <업종별>: 도소매업, 비즈니스서비스업, 숙박요식업, 소프트웨어 및 정보기술서비스업에 집중

부경대학교 국제지역학부 서창배

한국기업의 对陕西省 주요투자 현황

회사명	설립일	투자액(단위: 만$)	생산내용
KMW	2002.3	2,300만$	안테나, 통신필터
광물자원공사	2003.11	1,300만$	히토류
SK	2006.12	1,200만$	아스팔트
LG상사	2010.10	600만$	바이오매스
심텍	2010.12	7,500만$	PCB, 반도체
SK텔레콤	2012.9	2,300만$	의료회사 투자
삼성전자	2012.9	70억$	전자
한솔케미칼	2012.12	6,500만$	과산화수소
동우화인켐	2012.12	8,500만$	케미칼, PR
솔브레인	2012.12	3,000만$	화학
원익	2012.12	1,500만$	반도체 원료, 부품
동진	2012.12	1,200만$	신너, PR
대영C&E	2013.11	3000만元	

부경대학교 국제지역학부 서창배

一带一路와 陕西省/西安市의 기회

◆ 习近平주석, 中央亞 4개국 방문기간 중 "나의 고향 陕西省은 고대 실크로드의 출발점"이라고 말해 陕西省 주민들 크게 고무

- 西安, 과거 국제적 대도시인 당나라 수도(长安)으로 동서양 무역의 통로인 실크로드의 기점 ➔ 新실크로드 경제벨트건설이 西安을 주요 축으로 진행될 것으로 예상

❖ 西安: 아테네, 로마, 카이로와 함께 4大 古都 / 秦-汉-唐 13개 왕조의 수도(3천년 역사)

➢ 국제적 범위: 중화문명 발상지, 다수의 유적, 동서양 교류(SilkRoad) ➔ 세계 일류 여행목적지

➢ 중국내 범위: 기술혁신도시, 하이테크기술 선진 지역, 중국국제항공 허브, 중서부지역 교통허브

➢ 서부지역적 범위: 지역의 경제/금융/무역 및 물류 중심지

- (西安, 중국의 지리적 중앙) 新실크로드 시대의 고속철, 西安~우루무치까지 연결 ➔ 장기적으로 中央亞를 거쳐 유럽으로 편리하게 진출 예상

➢ (甘肃省)兰州~(新疆자치구)乌鲁木齐 연결 고속철도(1,776km) 완공, 시범 운행 중

SilkRoad노선 중, 고속철 노선과 개통 시간



자료: KOTRA 시안무역관, 시안시 소개 자료.

부경대학교 국제지역학부 서창배

陕西省, 一带관련 5개 주요 정책 ➔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모습

① 실크로드경제벨트의 발전방향 기획 ➔ 국가 발전전략에 포함

② 실크로드경제벨트에 자유무역지대 건설 ➔ 다양한 자유화 통해 경제 활성화

③ 육지, 항공, 디지털 등 3개 분야에서 실크로드경제벨트 건설 (국제 화물철도인 '창안호(長安號)' 개통, 항공 노선 증편, 中央亞와 정보네트워크 강화해 전자무역 발전)

④ 국제적 협력 통해 실크로드 경제벨트에 선진 제조업 단지 건설

⑤ 과학/문화/관광지대 구축

부경대학교 국제지역학부 서창배

❖풍부한 인력, 중국의 중심에 위치한 지리적 여건 등과 맞물려 유력 IT 기업이 시안으로 진출

➔첨단 장비제조/생물의약/연구개발/정보통신/인터넷/금융서비스 등 중심으로 발전가능성 높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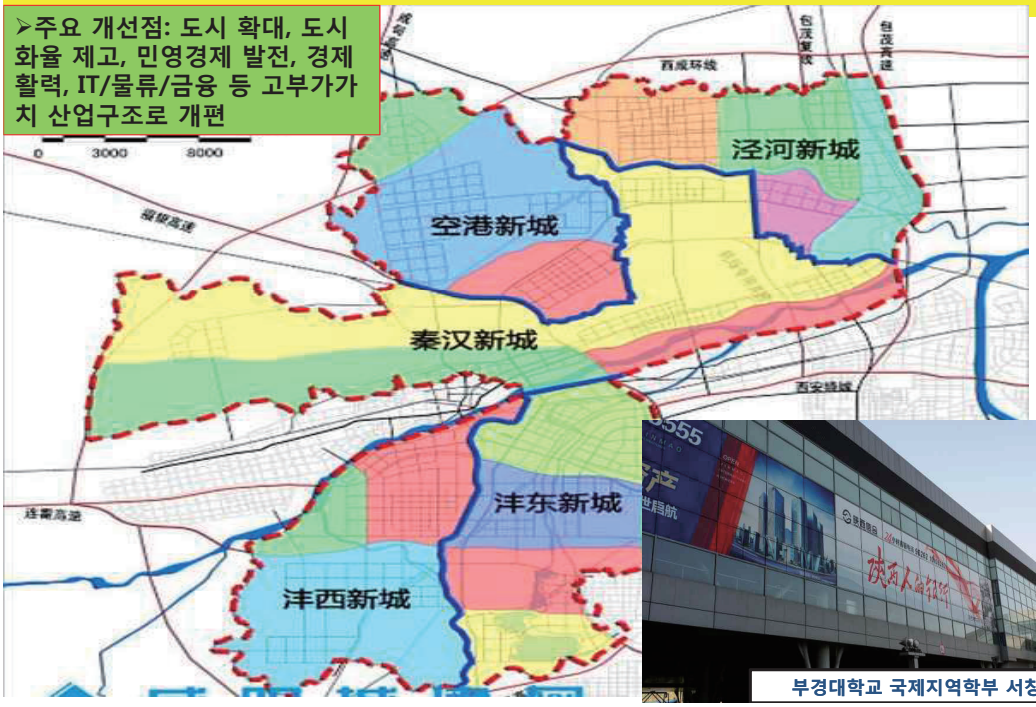
❖시안은 내륙도시의 단점을 극복하기 위해 3단계 발전전략 추진 중

➢내륙항 우선 건설 ➔ 산업개발구 형성 ➔ 종합적인 도시구역 건설 목표

西咸新区(西安-咸阳 중간지역) 5개 구역

서부대개발 12.5규획에 포함된 국가급 주요정책 ➔ 향후 빠른 건설/지역경제의 큰 성장 예상

➢주요 개선점: 도시 확대, 도시화율 제고, 민영경제 발전, 경제활력, IT/물류/금융 등 고부가가치 산업구조로 개편



부경대학교 국제지역학부 서창배



부경대학교 국제지역학부 서창배

관중-텐수이(关中-天水) 경제구

인가일	2009. 6.		
계획기간	2009~2020년	계획면적	8.0만㎢
주요도시	西安, 咸阳, 铜川, 渭南, 宝鸡, 扬陵, 商洛(部分区县), 天水(甘肃)		
핵심목표	서북부 내륙지역 개방 및 개발 선도		
기능 및 목표	- 서북, 북부 내륙 지역의 개방과 개발전진기지 - 첨단기술의 제조업, 현대적 서비스 중심지 . 물류, 금융, 관광, 문화 - R&D중심		
육성산업	- 기계설비제조, 첨단기술산업, 농산물 가공, 방직(陕西)		

❖ 2020년 목표(인구): 西咸新区 1천만 명, 关中-天水 3천만 명

부경대학교 국제지역학부 서창배

시안시 주요 개발구현황

명칭 (설립연도)	주요 산업	주요 기업	홈페이지
고신개발구 (1991)	IT, 첨단제조업, 바이오제약, 현대서비스업, 신에너지	삼성전자, 심텍, KMW, 한국광물자원공사, ZTE, Applied Materials, 화웨이, IBM, Micron, NEC, Toshiba	xdz.gov.cn
경제기술개발구 (1993)	전기전자, 식품가공, 신재료, 자동차	코카콜라, 지멘스, BP, Hitachi, ABB, BOSCH, 西電集團, 樂百氏	xetdz.com.cn
곡강신구 (2002)	문화, 전시컨벤션	曲江文化集團 등	qujiang.com.cn
챤바생태구 (2004)	금융, 농업, 제조업	海航集團 등	xachanba.com.cn
옌량국가항공기술산업기지(2004)	항공기 제조	西安三角航空,PFW Aerospace AG, Argosy International, Rockwell, Collins	caib.gov.cn
국가민용우주산업기지 (2006)	민용인공위성, 태양광, IT	朝光置業 등	xcaib.com.cn
국제항무구 (2008)	물류, 수출가공	CWT, Walmart, FedEx, 訊通物流	itl.gov.cn

부경대학교 국제지역학부 서창배

陕西省/西安市 주도 산업

① 상용자동차산업: 국가 신형산업화 시범대상지, 陕西자동차그룹 중심으로 다수 기업 진출

② 전력 및 전자산업: 섬서성 세계 500강 투자기업이 가장 집중된 산업

➢ 보쉬, 지멘스, ABB, Alstom, 히타치, 미츠비시 등 세계 500대 투자기업 및 서부전력 그룹 등 60여 개 업계 포탈기업들이 입주 ➔ 업계 보완성 우수하고 제품 연관성이 높은 상태

③ 식품/음료산업: 적절한 산업 체인을 구축하고 있으며 다양한 제품 생산

➢ 코카콜라, 캉스푸, 진웨이 맥주 등 국내/외 유명기업과 관련기업들이 산업체인 구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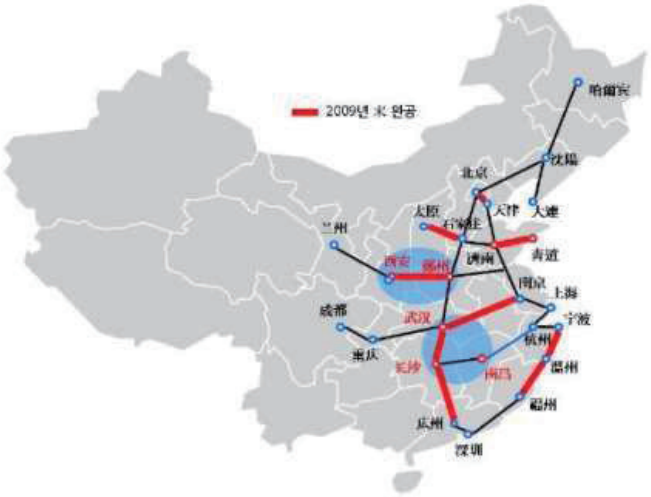
④ 新소재산업: 시안 국가 신소재 하이테크산업화 단지로 서북지역 비철금속연구원, 귀금속 소재 산업단지, 섬서성 항공소재 공정 실험실 등 존재

⑤ **태양광**/반도체산업: 태양광 솔라산업 집중단지 존재, BP 푸리, BP Gayang 등을 핵심으로 하는 솔라 부속품 생산기업들 집중. 홍콩 치창, 텐치 태양에너지 태양광 반도체 물류기업들도 소재, BP회사 태양에너지산업의 글로벌 이전의 전략 대상지로 각광.

⑥ **풍력발전 장비산업:** 섬서 풍력발전장비 산업단지 존재, 금봉하이텍, 둔안전기, 영전전기, 제력전자, 구화에너지 등 주요 기업 기반으로 2MW 및 그 이상의 풍력발전 장비제조업 위주로 풍력발전 장비 완제품 생산, 주요 부속품 제조 및 부속품 3급 산업체인 체계 구축

부경대학교 국제지역학부 서창배

중국, 거미줄 고속철도건설
→ 신흥내륙 소비시장 부상
(2012 전국 주요거점도시 8시간 생활권 조성, 서부제외)



<350km/h 개통 일시>
1. 베이징~톈진(08.8월)
2. 우한~광저우(09.12월)
3. 정저우~시안(10.2월)
4. 상하이~난징(10.7월)
5. 상하이~항저우(10.9월)
6. 베이징~상하이(11.6월)

2010까지 완공된 고속철도(8,358km), 중국인구의 60%/GDP 75%
→거대 소비시장으로 급부상
→우한, 창사, 시안, 정저우 등 소비재매출 증가율 약 18% 상승
→2020까지 전체 철도망 18,000km 건설 목표

韩国釜庆国立大学 徐畅培

<高速铁的发展对中国社会的影响>



韩国釜庆国立大学 徐畅培



제1유형 지표 경제발전수준			
항목	국제표준	서안현황 2009년 데이터	서안목표 2020년까지
1인당 생산총액	10000-12000달러 이상	4737달러	10000달러
3차 산업 부가가치의 GDP 비중	70% 이상	53.7%	70% 이상
대외의존도	30% 안팎	20% 안팎	기본적으로 30% 도달
과학기술 R&D 투입의 GDP 비중	5% 이상	4.41%	앞당겨 5% 이상 도달할 예정
도시규모	도시인구 800만~1500만 명	도시인구 521만5800만 명	1000만 명

미래 전망

시안 2020발전목표: 지역적/전문화/국제화된 대도시
(2010-04-23, 서안일보(西安日報)

◆시안, 세계 일류의 관광지로 구축

◆시안, 국제화 대도시 구축 기반 및 여건 구비

◆산시성, 2020년 전면적 샤오캉사회 실현 노력

부경대학교 국제지역학부 서창배

한-중 관계 발전 추이



2013, 전략적 협력 동반자 관계의 내실화
- 박근혜 대통령 방중 계기



2008, 전략적(戰略的) 협력 동반자 관계
- 이명박 대통령 방중 계기



2003, 전면적(全面的) 협력 동반자 관계
- 노무현 대통령 방중 계기



1998, 21세기를 향한 협력 동반자 관계
- 김대중 대통령 방중 계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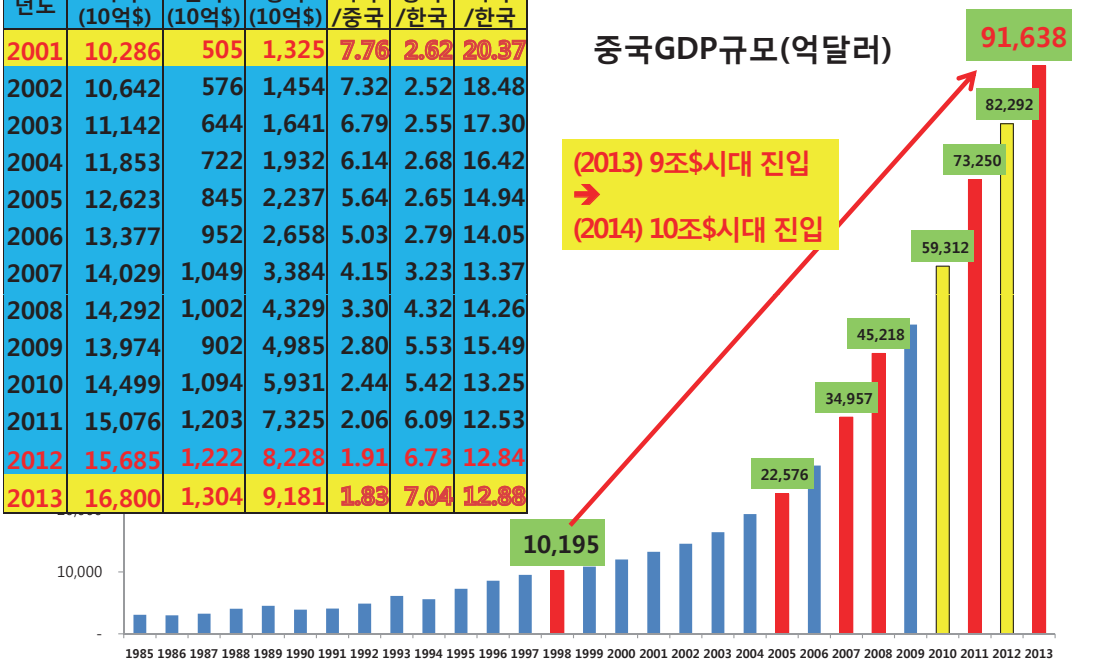


1992, 우호협력관계
- 한-중 수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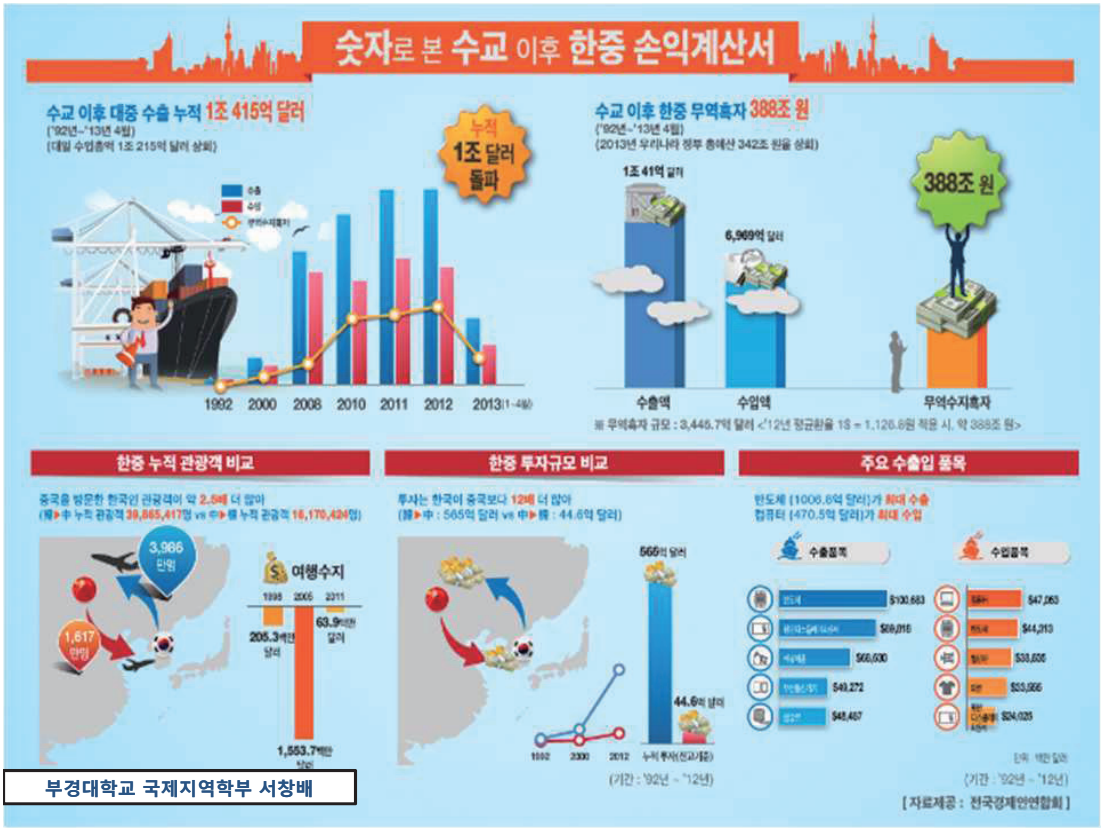
부경대학교 국제지역학부 서창배

중국경제의 성장과 한국-미국 간의 경제 격차 추이

년도	미국 (10억$)	한국 (10억$)	중국 (10억$)	미국 /중국	중국 /한국	미국 /한국
2001	10,286	505	1,325	7.76	2.62	20.37
2002	10,642	576	1,454	7.32	2.52	18.48
2003	11,142	644	1,641	6.79	2.55	17.30
2004	11,853	722	1,932	6.14	2.68	16.42
2005	12,623	845	2,237	5.64	2.65	14.94
2006	13,377	952	2,658	5.03	2.79	14.05
2007	14,029	1,049	3,384	4.15	3.23	13.37
2008	14,292	1,002	4,329	3.30	4.32	14.26
2009	13,974	902	4,985	2.80	5.53	15.49
2010	14,499	1,094	5,931	2.44	5.42	13.25
2011	15,076	1,203	7,325	2.06	6.09	12.53
2012	15,685	1,222	8,228	1.91	6.73	12.84
2013	16,800	1,304	9,181	1.83	7.04	12.88



부경대학교 국제지역학부 서창배



부경대학교 국제지역학부 서창배

도시화와 관련 정책 방향

구 분	인구 (억명)	수요 특성	정책 방향
도시 호적인구	4.6	삶의 질 개선	도시건설 정교화(스마트+환경), 지역 균형발전, 부동산 대책
도시 유동인구(농민공)	2.5	도시민화	사회보장시스템 개혁, 토지제도, 호적제도 개혁
도시유입 잠재인구	2.3	신규 도시 이주	경제성장 추진, 일자리 창출, 공공서비스 균등화
안정된 농촌 인구	4.2	생활 농촌 환경 개선	농업 현대화, 빈농 지원 정책 등

부경대학교 국제지역학부 서창배

업종	분야	도시 호적 인구 수요	도시 유동 인구 수요	도시 유입 잠재인구 수요	시장화 추진	정책 지원
교통 인프라	고속철도	√	√			√
	도시 궤도교통	√	√			√
건축 엔지니어링	건축인테리어	√			√	
	공원 녹지	√			√	
	도시 종합건설		√	√		√
	병원 건설		√	√		√
에너지절감환경보호	에너지절감건축	√	√			√
	폐수처리	√	√			√
	고체폐기물처리	√	√			√
스마트 도시	전자정부	√				√
	클라우드컴퓨터데이터센터 건설	√			√	
	의료 정보화	√			√	
	스마트 금융	√			√	
스마트 교통	스마트교통 관리시스템	√				√
보안	전자경찰	√	부경대학교 국제지역학부 서창배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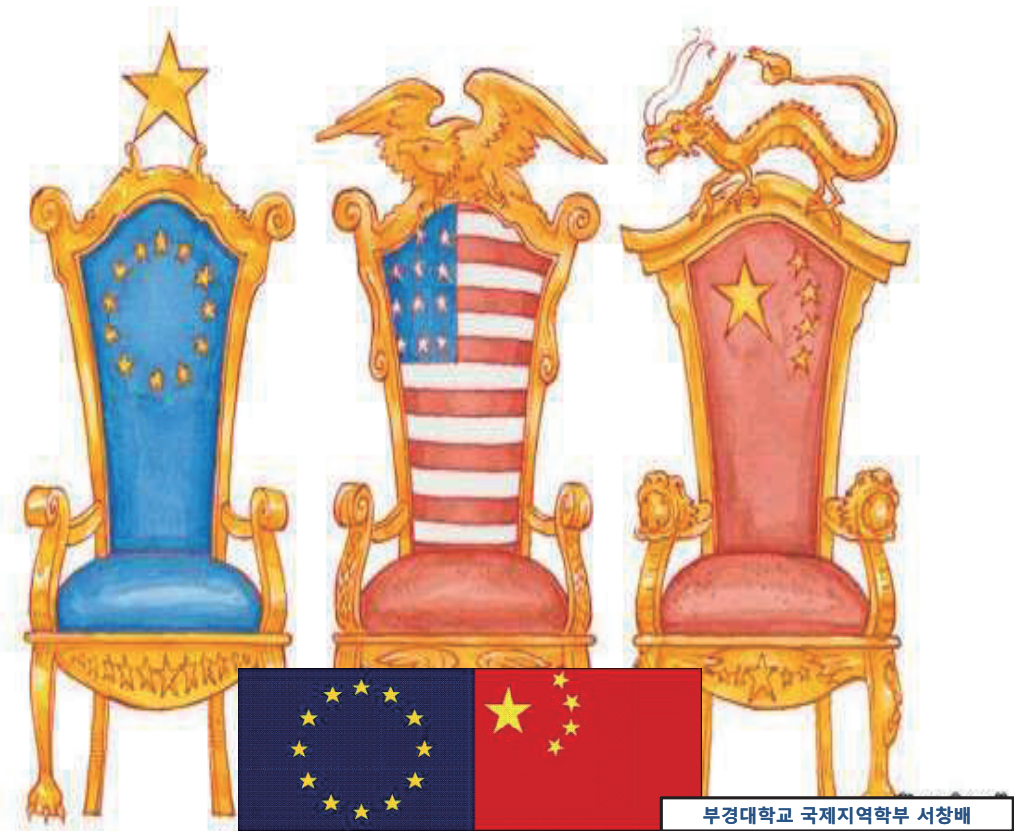
업종	분야	도시 호적 인구 수요	도시 유동 인구 수요	도시 유입 잠재인구 수요	시장화 추진	정책 지원
의료건강	의료설비		√	√		√
	전문의료		√	√		√
	의료서비스기구		√	√		√
문화미디어	교육균등화		√	√		√
	IT화 제고	√	√		√	
	여가오락	√	√	√	√	
부동산	1~2선 중심	√			√	
	대도시교외지역 및 3선 도시		√		√	
요식업	대중 패스트푸드 프랜차이즈		√	√	√	
소비재	가전제품	√	√	√	√	√
	자동차	√	√		√	√
	의류 패션	√	√	√	√	
	식음료	√	√	√	√	
유통망	2~3선 도시 유통망		√	√	√	
	온라인 쇼핑	√	√	√	√	

부경대학교 국제지역학부 서창배

국토규획을 통해 본 2020년 중국 도시군 분포도



부경대학교 국제지역학부 서창배



부경대학교 국제지역학부 서창배



참고 문헌

- AIIB Website, http://www.aiibank.org/
- 서창배(2014.4.25), 중국 一带一路(OBAOR)/AIIB전략의 정치적/경제적 함의, 한중사회과학학회 2015 춘계학술대회.
- 姚铃(2014. 8. 28)，中欧经贸关系步入全新发展周期，商务部国际贸易经济合作研究院欧洲研究部.
- 经济日报(2014.9.3), 陕西省加快丝绸之路经济带建设的调研
- KOTRA, "중국의 대외무역협정 추진방향 및 한·중 FTA 기대효과", 2015.3.18, http://www.globalwindow.org/GW/china/
- Wikipedia, Asian Infrastructure Investment Bank, http://en.wikipedia.org/wiki/Asian_Infrastructure_Investment_Bank [검색일: 2015.4.20].
- 한국경제신문, '메기효과' 필요한 한국 경제, 2014.7.8, http://www.hankyung.com/news/app/newsview.php?aid=2014070818941)
- 이지용(2014), 중국 '一带一路'전략의 정치경제적 함의와 시사점, 국립외교원 주요 국제문제분석 2014-38, 2014.11.25.
- 신성원(2014), 중국의 대외정책과 주변국 관계, 국립외교원 정책연구과제(2014-01).
- http://abcaz/eng/news_03_04_2015_87530.html, 3 April 2015.
- "España se suma a última hora al Banco Asiático de Inversión (es)". March 28, 2015.
- "Taiwan, Norway seek to join China-backed AIIB, Japan still cautious". 《610KDAL》. 31 March 2015.
- "Hungary to join China-backed AIIB investment bank - PM Orban". Reuters. 1 April 2015
- [http://www.yonhapnews.co.kr/bulletin/2015/03/31/0200000000AKR20150331085800073.HTML?input=1195m>
- "World Bank welcomes China-led infrastructure bank", *Reuters*, July 8, 2014.
- "Statement by Asian Development Bank President Takehiko Nakao", 24 October 2014.
- "No way North Korea' — DPRK refused entry to China-led AIIB". 《Emerging Markets》. March 27, 2015.
- 人民网, 中国网, 财经网, RISS, 上海证券报, 연합뉴스, 서울신문, 대외경제정책연구원

부경대학교 국제지역학부 서창배

부산/울산/경남 中國硏究의 중심, 국립부경대학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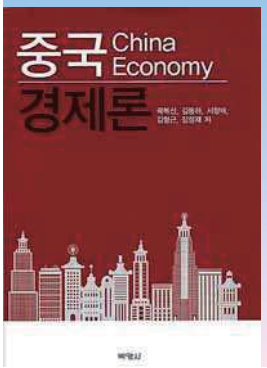
国之交在于民相亲
民相亲在于心相通

제주도의 對中國사업 성공을 기원하며



Thank You~~

非常感谢~~



서창배 (徐暢培)
부경대학교 국제지역학부(중국경제)
010-5099-0066
rainmaker@pknu.ac.kr
cbyoung@hanmail.net

제주발전연구원 개원 18주년 기념 세미나

중국 정책 변화와 제주의 대응 방안

주제발표 2

제주특별자치도의 중국자본 유치 확대방안

정 지 형(제주발전연구원 중국연구센터장)



제주특별자치도의 중국자본 유치 확대방안

2015.04.29
중국연구센터
정지형

1. 들어가며
2. 제주지역 경제여건과 투자유치 방향
3. 제주의 중국자본 유치현황
4. 제주의 중국자본 활용 방안

1. 들어가며

저우추취(走出去)정책에 따른 중국의 해외투자 증가세

环球网에 따르면 2014년 중국의 대외직접투자액은
1,160억 달러로 전년대비 15.5% 증가

中国新闻网에 따르면 2014년 중국기업의 해외인수합병은
272건으로 전년대비 36% 증가

청화대학 중국·세계경제연구 센터에 따르면 2025년의
중국 대외직접투자 규모는 미국을 추월할 것으로 예측

중국의 해외투자에 대한 규제 완화, 민간기업의 해외투자 증가

해외직접투자 확대

중국자본 유치 다변화를 위한 방향설정 및 세부전략 마련 필요

1. 들어가며

제주지역 중국자본 투자 ⇒ 관광산업 부동산 투자에 집중

2010~2014년 제주지역 투자유치 현황			
호텔	분양형콘도	분양형콘도+개별시설	분양형콘도+호텔+개별시설
2	1	5	5
더코브('13), 덕림('13)	오션스타리조트('12)	백통신원('11), 무수천('12), 제주그랜드('12), 토평농어촌단지('12), 테디팰리스('14)	분마이호('10), 차이나비욘드('11), 헬스케어타운('12), 신화역사공원('13), 상모유원지('13)

현재 부동산 투자 위주로 편중되어 있는 중국자본을
지역내 산업간 연관관계 강화, 신 성장산업 투자유치 확대 필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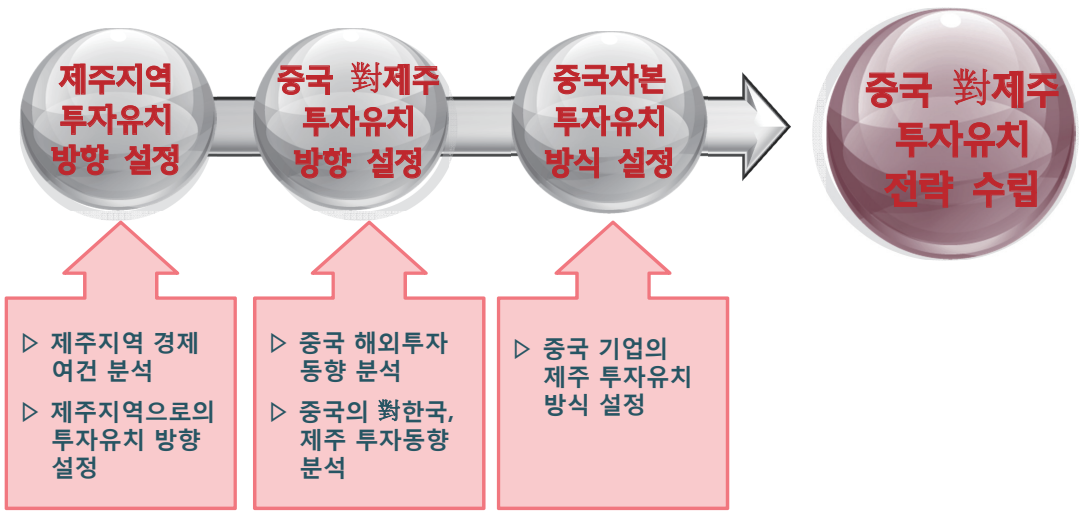
1. 들어가며

중점 투자유치 대상: 4대 분야 8대 업종 14개 사업모델

분야	업종	투자사업	수익모델	투자입지
첨단산업	① IT/BT/CT	▪소프트웨어, 콘텐츠개발(IT/CT) ▪제조공장(BT)	▪세제혜택 ▪성장성	▪개별입지 ▪비축토지 ▪산업단지(장기)
	② 전기자동차	▪R&D+테스트베드 형	▪성장성 ▪시험적투자 ▪제품 마케팅	▪개별입지 ▪비축토지
교육의료	③ 특성화대학	▪요리, 미용, 호텔	▪자생력 ▪직업기회창출	▪영어교육도시 ▪기존 대학
	④ 전문병원	▪병원+장기요양	▪중국/동남아 고소득 의료관광객	▪헬스케어타운
레저문화	⑤ 육.해상레저	▪종합 키즈테마파크 ▪마리나항만 ▪레저보트제조업 ▪어촌 어항 관광시설	▪국내외관광객(육상) - 가족관광 패턴 ▪국내외관광객(해상) - 중국, 러시아 고소비계층	▪개별입지 ▪거점마리나
	⑥ MICE	▪다국적기업 연수원	▪기업자체 필요시설(교육,연수)	▪개별입지
향토자본	⑦ 6차산업	▪미용치료형 ▪건강보양형 ▪말산업시설	▪국내외관광객 - 중국 부유층	▪개별입지 (마을토지 등)
	⑧ 합작투자	▪제조공장	▪성장성 - 중국관광객 - 중국 소비시장	▪개별입지 ▪기존부지

1. 들어가며

연구의 과정 및 주요 내용



1. 들어가며

2. 제주지역 경제여건과 투자유치 방향

2.1 제주지역 경제여건 및 문제점

2.2 제주지역 투자유치 방향

3. 제주의 중국자본 유치현황

4. 제주의 중국자본 활용방안

2. 제주 경제여건과 투자유치 방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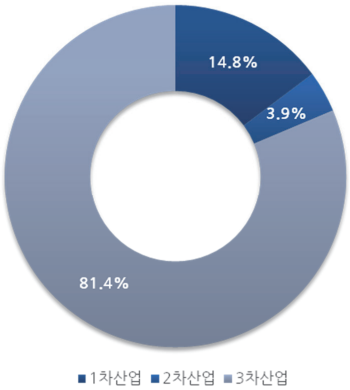
2.1 제주지역 경제여건 및 문제점

1·3차 산업 위주의 산업구조의 문제점

➢제주지역의 경우 섬이라는 지리적 특성으로 인해 제조업의 비중이 낮은 반면, 농림어업과 서비스업의 비중이 높은 사업 구조를 가지고 있음
-1차산업:14.8%
-2차산업 3.9%,
-3차산업 81.4%

➢이러한 1·3차 산업 위주의 산업구조에 따라 제주지역 경제는 중간 투입률이 높은 제조업의 비중이 낮아 전반적으로 약한 산업간 연관 관계를 가지고 있음

[2013년 기준 제주지역 산업구조]



기반산업의 침체

➢ 제주지역의 대표적인 기반산업인 농림어업과 관광 관련 산업의 성장이 상대적으로 침체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 제주지역 연평균 성장률 (2005~2009년 → 2009~2013년)
  농림어업: 5.7% → -1.2%
  숙박 및 음식점 업: 3.0% → 4.5%
  문화 및 기타 서비스업: 8.0% → 2.3%

➢농림 어업 및 관광 관련 산업의 경우 외부 환경 변화에 상대적으로 민감하게 반응하는 산업으로, 향후 기반산업의 침체가 장기화 될 경우 제주지역 경제 성장에 제약이 발생할 수 있음

자료출처: 중화권 투자유치 확대 전략, 2015.01, 제주발전연구원

2. 제주 경제여건과 투자유치 방향

2.2 제주지역 투자유치 방향

제주지역 투자유치 방향 설정의 전제

▪ 지역자본 기반이 미약한 제주지역의 실정을 감안할 때, 제주지역으로의 투자유치는 기본적으로 **제주지역 경제가 가지고 있는 문제점을 해소할 수 있는 방향에서 추진 필요**

제주 경제여건 분석
산업구조 분석 등
→ 제주 경제여건 문제점 도출
→ 제주지역 투자유치 방향 설정

2. 제주 경제여건과 투자유치 방향

2.2 제주지역 투자유치 방향

제주지역 투자유치 방향(투자유치 대상 산업)

1·3차산업 위주 산업구조 ⇒ 낮은 산업간 연관관계
- ➢ 지역 내 산업간 연관관계 강화 → 제조업, 기반산업 관련 산업

기반산업의 침체 ⇒ 지역경제 성장 침체
- ➢ 신성장동력산업 육성 → IT/CT, 스마트그리드 등

교육 및 의료기반 부족 ⇒ 투자유치 제약 요인
- ➢ 투자유치 인프라 확충 → 교육, 의료

1. 들어가며
2. 제주지역 경제여건과 투자유치 방향
3. 제주의 중국자본 유치현황
3.1 중국의 해외투자 특성
3.2 제주지역 중국자본 투자 동향
4. 제주의 중국자본 활용방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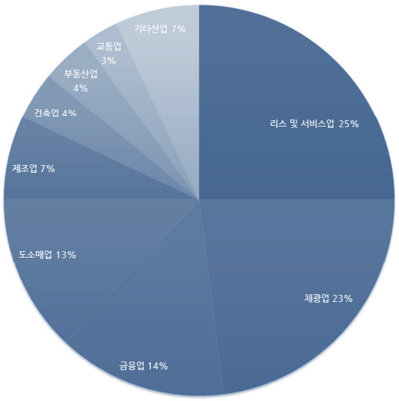
3. 제주의 중국자본 유치현황

- 1997년 : 중국공산당 15차 전국대표대회와 전국외자업무회의에서 장쩌민 전 주석은 국내 기업의 해외진출과 외국자본의 국내 투자유치를 통해 다자간 무역체계와 지역경제협력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것을 주창
- 2001년 : 국민경제 및 사회발전 제10차 5개년 계획요강에서는 **저우추취(走出去) 전략을 국가전략화**
- 2006년 : 중국 국가발전개혁위원회, 상무무, 외교부, 재정부, 해관총서, 국가세무총국, 국가외환관리국은 공동으로 '**경외투자산업지도정책**'과 그 부속문건으로 '경외투자산업지도목록' 마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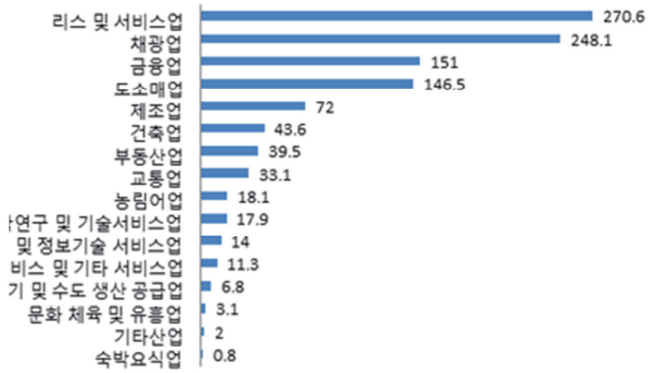
3. 제주의 중국자본 유치현황

3.1 중국의 해외투자 특성

▪ 2013년 중국의 해외직접투자액 : 1,078.4억 달러(전년대비 22.8% 증가)
- 상무부에 따르면 2015년 중국의 해외투자는 1,500억 달러로 예측
- 중국의 해외투자는 임대 및 서비스업, 금융업, 채광업, 도소매업, 제조업 등 5대 업종에 집중, 전체 투자금액의 83%를 차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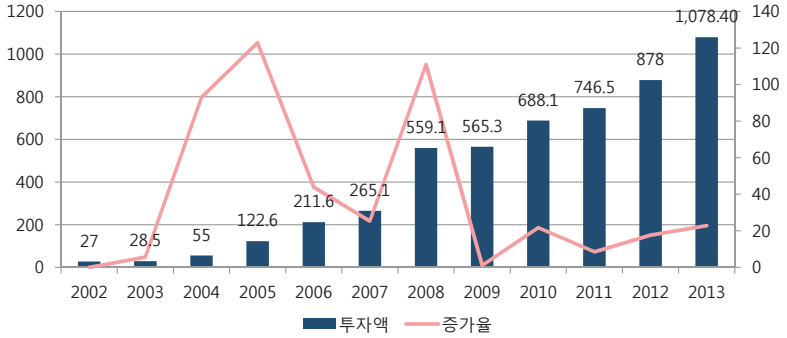
(단위: 억 달러)



3. 제주의 중국자본 유치현황

3.1 중국의 해외투자 특성

[중국의 해외직접투자 추이] 단위: 억 달러, %



[2013년 중국의 대륙별 진출 기업수 및 비중]

대륙	진출 기업 수	비중(%)
아시아	14,131	55.6
유럽	3,133	12.3
북아메리카	3,073	12.1
아프리카	2,955	11.6
라틴아메리카	1,331	5.3
대양주	790	3.1
합계	25,413	100.0

● 중국의 해외직접투자 대부분은 아시아 지역에 집중

3. 제주의 중국자본 유치현황

3.1 중국의 해외투자 특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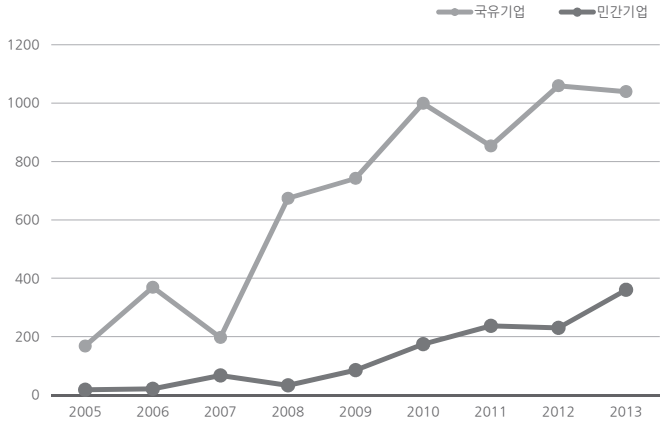
중국의 해외직접투자는 국유기업이 최대 주체이지만,
2005-2013년 사이 민간기업의 해외직접투자가 빠르게 증가

-국유기업의 해외직접투자액은 2005년 168억 달러에서 2013년 1,039억 달러로 증가

-민간기업의 해외직접투자액 또한 2005년 18억 달러에서 2013년 360억 달러로 빠르게 증가

-민간기업의 경우 M&A(Mergers and Acquisitions)사례가 많이 증가하고 있음

[중국 국유/민간기업 직접투자 금액 추이]



자료출처: 현대경제연구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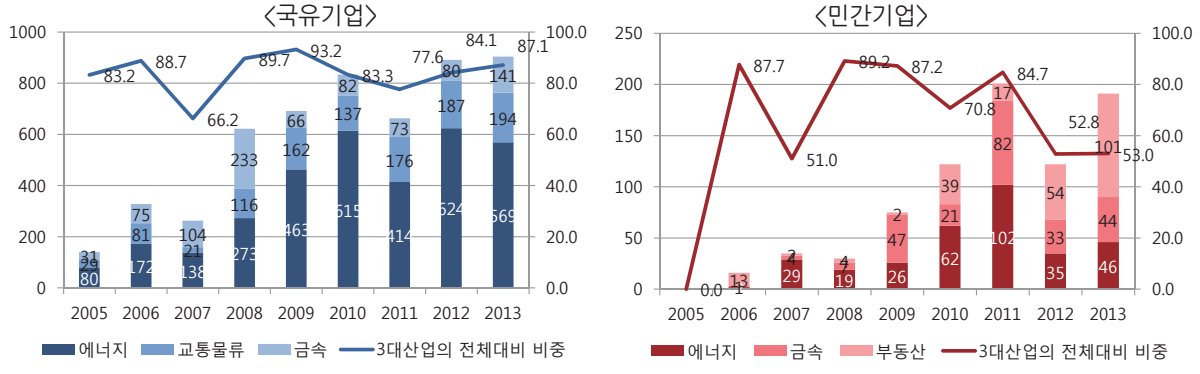
3. 제주의 중국자본 유치현황

3.1 중국의 해외투자 특성

▪중국 국유기업과 민간기업은 모두 에너지와 금속분야를 중심으로 투자를 진행하고 있음

- 국유기업의 3대 해외직접투자 산업은 에너지, 교통·물류, 금속으로 2013년 기준 3대 산업의 투자액은 87.1% 차지하였음
- 민간기업의 3대 해외직접투자 산업은 에너지, 금속, 부동산으로 2013년 기준 3대 산업의 투자액은 전체의 53%를 차지하였음

[중국 국유/민간기업 3대 직접투자 산업]



자료출처: 현대경제연구원

3. 제주의 중국자본 유치현황

3.1 중국의 해외투자 특성

▪중국의 해외직접투자방식은 JV(Joint Venture: 일반적 지분투자), M&A(인수합병), Grenn Field(부지확보 후 공장과 사업장을 설치하는 방식) 방식이 있음

▪ 중국의 해외직접투자 형태는 Grenn Field보다는 M&A 방식을 선호하고 있음
- 2013년에는 M&A와 Grenn Field가 각각 72.2%, 27.8%를 차지하는 등, M&A 투자비중이 급속히 증가하였음
- 10억 달러 이상의 대형 M&A는 19건으로 동기간 총액의 60% 차지

▪ 중국의 투자유형이 Grenn Field 투자보다는 M&A형 투자가 절대 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것에 주목

-한국은 고부가 서비스, 신성장동력 분야에 대한 신규 법인설립 투자를 희망하는 반면, 중국은 기술 및 선진 경영 노하우 습득 또는 시장 경쟁력이 입증된 기업의 인수합병으로 위험을 최소화한다는 점에 주목

-따라서 차이나머니에 대한 거부감을 없애고 정책적 안전장치 마련과 중국대비 비교우위 산업을 중심으로 상호 win-win 하는 made-with China 추진이 필요

3. 중국의 對제주 투자유치 방향

중국의 해외 M&A 추이(2004~2013년)

(단위: 억 달러, %)

연도	M&A 금액	증가율
2004	30	-
2005	65	116.7
2006	82.5	26.9
2007	63	-23.6
2008	30	379.4
2009	192	-36.4
2010	297	54.7
2011	272	-8.4
2012	434	59.6
2013	529	21.9

중국의 업종별 해외 M&A 비중(2013년 기준)

(단위: 억 달러, %)

산업	기업 수	실제투자금액	비중
채광업	43	342.3	64.7
제조업	129	73.2	13.8
부동산업	13	30.8	5.8
임대 및 서비스업	46	21.9	4.1
소트프웨어 및 정보기술 서비스업	23	21.9	4.1
도소매업	88	11.4	2.2
숙박요식업	5	7.7	1.5
농림어업	23	5.9	1.1
문화체육 및 유흥업	8	4.8	0.9
전기 및 수도 생산 공급업	11	3.5	0.7
과학연구 및 기술서비스업	16	3.1	0.6
주민서비스 및 기타서비스업	11	1.8	0.3
건축업	2	0.2	0.2
환경 및 공공시설 관리업	2	0.2	
금융업	1	0.2	
교통업	3	0.1	
합계	424	529	100

3. 제주의 중국자본 유치현황

3.2 제주지역 중국자본 투자 동향

중국 기업의 국내 투자 현황

▪ 중국 기업의 對한국 투자는 양국 간 무역관계 및 한국의 對중국 투자에 비해 아직까지는 미미한 수준

-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2013년 중국의 산업별 對한국 투자는 제조업과 서비스업이 전체 투자의 90% 이상을 차지

- 2011년 이후 서비스업에 대한 투자가 급증하고 있으며, 특히 부동산·임대업의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음

3. 제주의 중국자본 유치현황

3.2 제주지역 중국자본 투자 동향

▪ 중국의 對한국 투자는 서비스업이 가장 큰 비중을 차지(2013년 기준 54.7%)

- 서비스업 중 부동산·임대업 1위, 비즈니스 서비스업 2위, 도·소매업 3위

구분	농·축·수산·광업		제조업		서비스업				전기·가스·수도·건설	
							부동산·임대			
	신고 건수	신고 금액	신고 건수	신고 금액	신고 건수	신고 금액	신고 건수	신고 금액	신고 건수	신고 금액
2009	6	745	50	17,164	472	139,979	7	104,544	9	1,719
2010	16	1,763	75	310,414	516	101,145	4	4,749	9	855
2011	11	54,193	49	132,619	341	463,062	17	289,069	4	980
2012	5	4,004	58	167,680	440	553,033	24	283,111	9	2,335
2013	6	577	47	45,211	344	432,902	53	214,792	5	2,495

3. 제주의 중국자본 유치현황

3.2 제주지역 중국자본 투자 동향

산업	전체 외국인투자기업		중국자본 투자 외국인투자기업	
	개소	비중	개소	비중
건설	2	1.4	1	1.1
공공·기타서비스	4	2.8	2	2.3
금융·보험	2	1.4	0	0.0
농·축·임업	2	1.4	1	1.1
도·소매(유통)	19	13.1	14	15.9
문화·오락	2	1.4	2	2.3
부동산 임대	57	39.3	40	45.5
비즈니스서비스업	8	5.5	4	4.5
섬유·직물·의류	1	0.7	0	0.0
식품	2	1.4	0	0.0
어업	2	1.4	1	1.1
운수·창고(물류)	11	7.6	5	5.7

▪ 중국의 對제주 투자는 대부분 관광 및 숙박사업 등에 편중

•제주지역 내 외국인 투자기업 145개소 중 60.7%(88개소) 중국자본 투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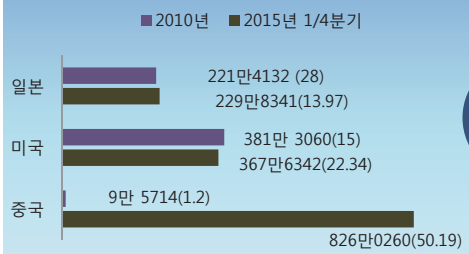
•중국자본 투입 기업 중 부동산 임대업이 45.5%(40개소)로 가장 많음

•제주지역 내 부동산 임대업 부문 전체 외국인 투자기업 57개소 중 중국 투자기업 비중 : 94.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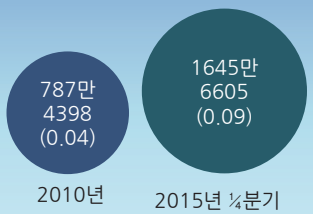
•이외 중국자본 투입 기업 업종은 음식·숙박업, 도·소매유통, 운수·창고 순으로 비중이 높음

3. 중국의 對제주 투자유치 방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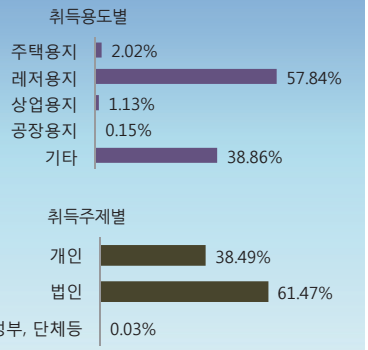
외국인 소유 제주도 토지 추이
단위:㎡, ( )안은 비중, %



외국인 소유 제주도 면적 변화
단위:㎡, ( )안은 토지 비중, %



외국인 토지 매입 이모저모
단위:% *2015년 ¼분기 기준



자료출처: 제주특별자치도 내부자료, 중앙일보



3. 제주의 중국자본 유치현황

3.2 제주지역 중국자본 투자 방향

▪ 중국의 해외투자 확대 목표: 첨단기술 확보 및 선진 경영 노하우 습득
▪ 중국의 주요 투자 유형: Green Field < M&A
➢ 제주지역 투자유치 대상 산업군과의 연계성 낮음↓
다만, 규제완화 및 민영기업 해외직접투자 증가 예상
⇒ 투자대상 산업부문 다양화

제주지역이 가지고 있는 장점을 활용할 수 있는 BT(식품 및 화장품) 제조업 등을 중심으로 투자유치 모색 필요

중국 내 기업 및 기관 대상 면담 결과, IT/교육/의료 관련 투자 가능성 존재

▪ 제주지역은 1·3차 중심의 산업구조를 가지고 있는 바, 기업유치를 통한 투자유치 한계 발생 가능성 존재
▪ 제주지역의 중국 정부의 해외투자 장려정책 변화를 감안하여 중국기업과 'made with/for China' 협력기회 활용 필요
- 중국기업과의 합작 및 투자유치(made with)를 통해 제주 향토자원 을 활용한 제품 개발 후 제주기업과 공동으로 중국 내수시장 진출 (made for china)할 수 있는 전략 모색 필요

1. 들어가며
2. 중국인 관광객 현황
3. 제주의 중국자본 유치현황
4. 제주의 중국자본 활용방안

4. 제주지역 중국자본 활용방안

▪제주지역은 1·3차 중심의 산업구조를 가지고 있는 바, 기업유치를 통한 투자유치 한계 발생 가능성 존재

▪ 제주지역의 중국 정부의 해외투자 장려정책 변화를 감안하여 중국기업과 'made with/for China' 협력기회 활용 필요
- 중국기업과의 합작 및 투자유치(made with)를 통해 제주 향토자원을 활용한 제품 개발 후 제주기업과 공동으로 중국 내수시장 진출(made for china)할 수 있는 전략 모색 필요

▪ 일반적인 기업유치 방식 + 합작투자 방식 모색 필요
- 제주지역의 다양한 생물자원 등의 장점을 활용한 사업모델을 발굴하고, 이에 대한 중국의 투자를 유도하는 방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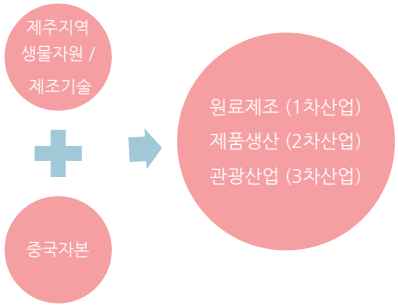
▪ 단, 합작투자 방식 기반 사업모델 발굴 시 제주지역의 기반산업인 관광산업과의 연계를 통해 지역경제 성장 기여도를 높이기 위해 6차산업화 할 수 있는 사업모델 발굴 필요



4. 제주지역 중국자본 활용방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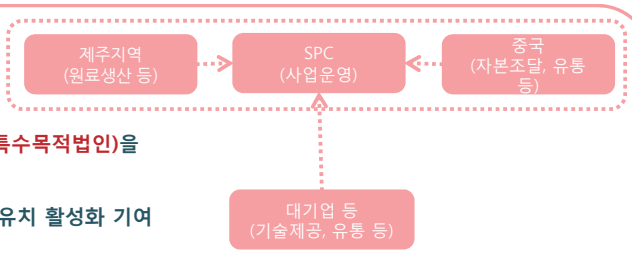
6차산업화

▪중국의 對제주 투자유치 시 투자목적과 관련한 제품 및 서비스의 생산과 함께, 제주지역 방문 관광수요의 증대에 기여할 수 있도록 사업모델 개발 (사례: 넥슨컴퓨터박물관)
- 현재 제주지역에서의 중국자본 투자는 부동산 및 관광산업에 집중
- 기업 입장: 사업성 확보, 제주지역 입장: 방문 관광객 증대 기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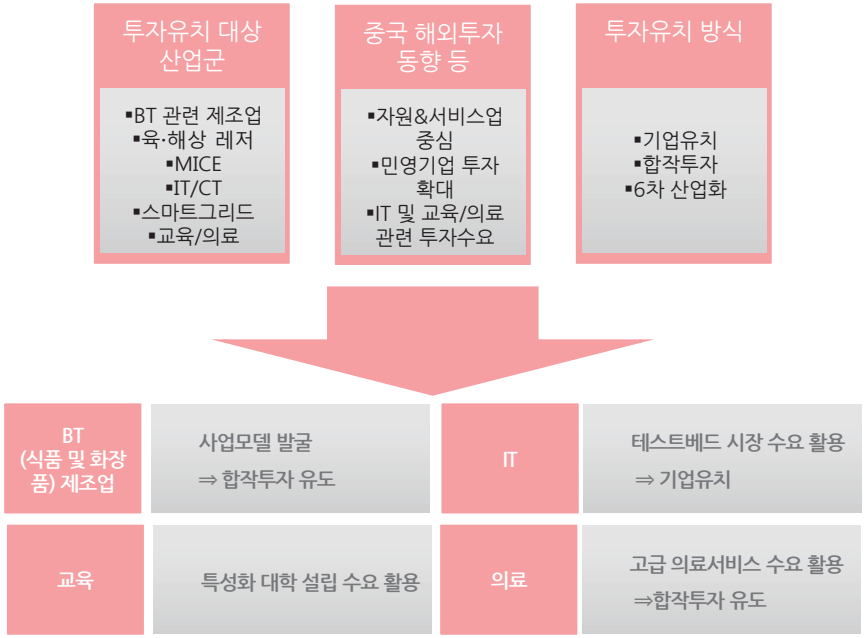


합작투자

▪ 중국의 對제주 합작투자 방식의 투자유치는 SPC(특수목적법인)을 통해 추진 필요
- SPC 특징: 이해당사자간 위험 배분 가능 ⇒ 투자유치 활성화 기여
- 제주지역의 입장에서는 중국의 투자에 따른 지역경제적 효과 극대화 가능



4. 제주지역 중국자본 활용방안



4. 제주지역 중국자본 활용방안

식품 제조업

- 중국 식품산업은 경제성장에 따른 식품소비 지출액 증가에 따라 성장 중
  - 중국 내수식품시장 규모는 2011년 기준 약 5조7천억 위안으로, 2005년 이후 두 자리수 이상의 가파른 성장세
- 중국 식품산업 성장은 민간 식품업체들에 주도되고 있음
- 최근 소득수준이 높아짐에 따라 제품의 질에 대한 관심도 증대 ↑
  - 소비핵심층인 80후 세대가 출산과 양육시장의 주역이 되면서 웰빙 식품 등에 대한 관심 증대
- 이와 함께 수입식품이 안전식품이라는 인식 확대 ⇒ 수입식품 소비 증가세
  - 중국 수입식품 총액: 952억 1000만 달러(2013년 기준, 연 8.9% 성장)
    *미국 식품공업협회는 2018년 중국이 세계 최대 수입식품 소비국으로 부상할 것이며, 수입식품 시장 규모가 4800억 위안(약 769억 1000만달러)에 이를 것으로 전망

식품 제조업 투자유치 전략	• 제주의 청정한 이미지를 활용한 고품질 농식품의 파생상품 개발 필요 • 제품 생산설비의 확장 및 중국 내수시장 판로개척 등과 관련하여 중국자본과 도내 기업과의 합작투자 추진 필요지역 내 식품기업을 중심으로 새로운 형태의 투자모델 설정과SPC 설립을 통한 투자유치 확대 전략 모색+ 지역 내 우수 식품기업에 대한 인증시스템 구축⇒ 신뢰 확보

4. 제주지역 중국자본 활용방안

화장품 제조업

- 중국 화장품 시장 규모(2013년 기준): 1,624억 위안
  - 소비액 기준 동기 21.25% 상승, 최근 3년간 연평균 20%이상 성장세 유지
- 중국 수입 화장품 시장 규모(2014년 기준): 251억달러
  - 전년대비 67.4% 증가, 연평균 10% 이상 성장세 유지
  - 주요 수입국: 미국, 일본, 프랑스, 한국(5억달러) 순
  - 특히 어린이 및 남성용 제품군의 수입이 크게 증가(각각 연평균 18%, 21%)

화장품 제조업 투자유치 전략

- 제주 화장품 기업의 영세성을 감안하여 장기적인 관점에서 중국기업의 투자를 통한 합작형태의 투자유치 방안 모색 필요
- 제주지역이 가진 생물다양성 등의 장점을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특화된 제품 개발 필요
- 국내 대기업 및 우량 중소기업 등과의 합작을 통해 제품개발 추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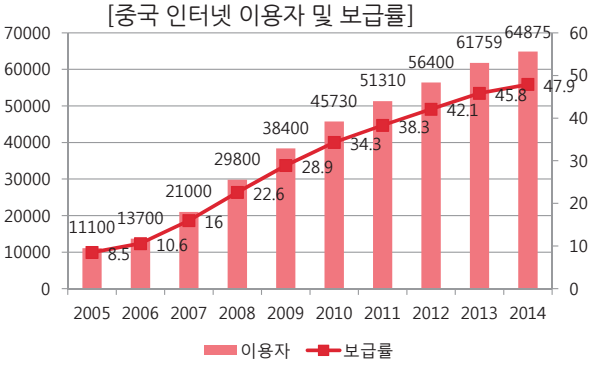
⇒ **중국기업을 통한 설비확충 및 중국 내 유통망 확보**

4. 제주지역 중국자본 활용방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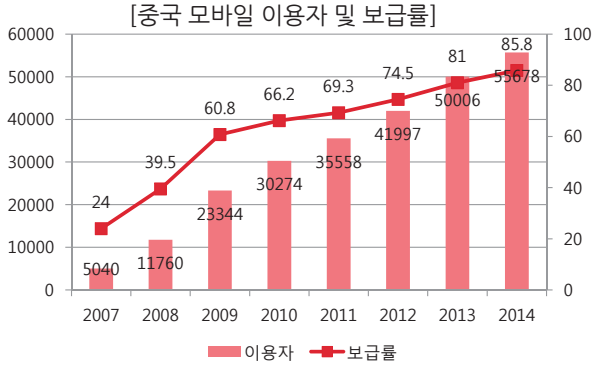
IT

- 중국 인터넷 이용자 규모: 6억 4900만명 (전년대비 3,117만명 증가)
- 중국 모바일 인터넷 이용자 규모: 5억 5700만명(전년대비 5,672만명 증가)

[중국 인터넷 이용자 및 보급률]



[중국 모바일 이용자 및 보급률]



4. 제주지역 중국자본 활용방안

IT

•중국 온라인게임 사용자: 3억 6600만명(인터넷이용자 56.4%)
- 이 중 모바일 게임 이용자는 2억 4800만명으로 전체 사용자의 44.6% 수준

• 중국 인터넷 기업 해외시장 지출 중 온라인게임의 해외진출이 가장 활발
- 2011년 기준 중국 기업 34개사의 131개 온라인게임이 해외시장 진출
- 해외 진출 온라인게임 매출액: 3억 6000만 달러(전년대비 56.5% 성장)

• 중국 온라인 게임 시장에서 중국 자국 게임은 전체 시장의 71.6% 점유
- 2012년 1~6월 중국게임 보고(중국출판협회게임위원회, GPC) 자료

• 다만, 중국 내 소비자의 해외 고품질 게임에 대한 선호도가 높아지고 있음

4. 제주지역 중국자본 활용방안

IT

IT 투자유치 전략	▪중국 인터넷 기업 성장과정 : 모방을 통한 초기시장 진입 ⇒ 외부 투자유치를 통한 연구개발 ⇒ 확보된 자금 활용 M&A, 지분인수 추진 ⇒ 역량 강화 • 한국의 경우 시장규모가 작으나, 인터넷 인프라 및 상업모델 구축이 잘 되어 있어 중국기업이 진입하기 좋은 조건을 지님 • 이와 함께 중국에서 성공한 게임의 테스트베드로써 한국시장을 활용할 수있다는 점에서 해외시장 진출을 위한 교두보 역할 수행 가능 • 전략적 제휴를 중심으로 중국 투자를 유치하고, 중국의 플랫폼을 활용하여 국내 기업의 발전과 경쟁력 제고 도모

4. 제주지역 중국자본 활용방안

교육

- 중국교육부는 2002년 12월 '고등교육기관 해외 학교 설립·운영에 관한 임시 관리법'을 공포하였음 (2003년 2월 1일 시행)
  - 이를 통해 중국대학들의 해외진출을 장려하며 전공을 확대하여 학위과정 또는 비학위과정을 실시하도록 허용
- 중국교육부가 2003년 발표한 '2003-2007년 교육진흥행동계획'에서는 교육의 대외개방을 한층 더 확대하고, 교육국제협력과 교류가 전 방위적·다영역·고차원적으로 발전해야 함을 명시
- 중국 내 대학 중 해외분교 설립 대학: 하문대학 말레이시아분교, 소주대학 라오스 분교, 홍하학원 베트남 태원대학 분교, 상해교통대학 싱가폴연구원생, 제담대학 방콕국제학원 등

지역	기관 명	현황	유치기관
인천 (송도)	한국뉴욕주립대 (SUNY Korea)	·규모: 석·박사과정, 407명 정원 ·본교: 뉴욕주립대학교 ·'11. 7. 13 설립승인 ·'12. 3. 3 개교	인천경제자유 구역청
광양	네덜란드 국제물류대학교 (STC Korea)	·규모: 석사과정, 40명 정원 ·본교: 네덜란드 STC-NMU ·'08. 1. 21 설립승인 ·'08. 3. 17 개교	국토해양부 광양시
부산	독일 프리드리히 알렉산더 대학교 (FAU Busan)	·규모: 석사과정, 100명 정원 ·본교: 독일 프리드리히 알렉산더 에어랑엔-뉘른베르크 대학(FAU) ·'09. 11. 17 설립승인 ·'11. 3. 2 개교	부산·진해 경제자유구역청

4. 제주지역 중국자본 활용방안

교육

교육 투자유치 전략	•중국 대학 유치는 중국 유학수요의 지역 내 흡수 및 중화권 유학생 유치를 통해 국가 차원의 유학수지 개선 및 지역경제 성장 기여 • 중국 대학 유치를 위해서는 일부 대학들의 해외학교 운영 경험을 종합하여 추진 가능한 프로그램을 상세히 규범화하고, 상호간 책임과 권한을 분명히 하고, 최대한 각국의 제도 및 법률, 교육규범, 관리 등 서로 다른 점에 대한 인지 필요 • 특히 중국은 교육기관의 해외분교 설립과 관련하여 정책 및 법률이 정립되지 않았으며, 지방정부 또한 교육서비스 시장 발전과 관련한 정책을 직접적으로 제정하지 않은 바, 신중한 접근이 필요

4. 제주지역 중국자본 활용방안

의료

- 중국인들의 의료서비스에 대한 만족도는 전반적으로 낮은 수준(KOTRA)
  - 특히 의료비용이 높고, 대기시간이 길며, 수속이 복잡한 데에 대한 불만 ↑
- 현재 중국 내 우수 의료자원은 북경, 상해 및 동부연안지역 대형도시에 집중
- 최근 중국에서는 고급 의료서비스에 대한 수요 증가
- 특히 소득의 증가, 전염병 창궐 이후 건강에 대한 관심증대, 환경문제, 노령화 등으로 인해 고급 의료서비스 및 Wellness 형 의료서비스에 대한 수요가 급속하게 증가
- 2013년 기준 환자유치 1위 국적은 중국, 2위인 미국과 현격한 차이
- 국내 중국 환자 지출 총 진료비: 1,016억원(전체 진료수입의 25.8%)
  - 중국인 환자 1인당 평균 진료비: 181만원 수준

[주요 국적별 외국인 환자 현황]

단위: 명, %

구분	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		유치기관
	실환자	비중	실환자	비중	실환자	비중	실환자	비중	
1위	중국	12,789	15.6	19,222	15.7	32,503	20.4	56,075	26.5
2위	미국	21,338	26.1	27,529	22.5	30,582	19.2	32,750	15.5
3위	러시아	5,098	6.2	9,651	7.9	16,438	10.3	24,026	11.4
4위	일본	11,035	13.5	22,491	18.4	19,744	12.4	16,849	8.0
5위	몽골	1,860	2.3	3,266	2.7	8,407	5.3	12,034	5.7
6위	베트남	921	1.1	1,336	1.1	2,231	1.4	2,988	1.4
7위	카자흐스탄	346	0.4	732	0.6	1,633	1	2,890	1.4

4. 제주지역 중국자본 활용방안

의료

의료 투자유치전략

- 의료관광이 의료서비스와 관광이 융합된 차세대 성장동력산업의 블루오션으로 부상하면서 시장 선점을 위한 국가 간 경쟁이 치열한 상황
- 우리나라 의료관광이 아시아 경쟁국과의 경쟁에서 우위를 확보하기 위해서는 용이한 자본조달과 효율적인 투자결정이 매우 중요하며, 이를 위해서는 투자 개방형 의료법인의 설립을 신중히 검토할 필요
- 제주지역의 경우 관광산업 특화지역으로 외국인환자를 대상으로 한 '관광 + 치료 + 요양' 연계 서비스 상품개발에 유리한 조건을 가지고 있는 바, 이를 활용한 사업 모델 개발이 필요

감사합니다